



**[실패의 경제]**  
고용소크·투자 감소에도  
“나의 사전에 양보란 없다”  
귀족 노조의 마이웨이  
03



**Economy**

코스피	2301.99	(-8.91)	코스닥	825.71	(-2.18)
금리 (연이자율)	2.09	(-0.02)	환율 (원/달러)	1129.20	(+5.70) (16일)

**최저임금 후폭풍, 한국경제 '난파선 신세'**

# 부총리마저 “경제에 부담”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회동**  
연령·업종 등 고용에 영향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재정 통한 개입은 ‘부정적’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와 회동 후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

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

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회동한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담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30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계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753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우승컵 높이든 프랑스 선수들  
프랑스 선수들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꺾고 정상에 오른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 성토장 된 中企간담회

**홍중학 중기부 장관**  
“업계 고충 최대한 반영”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을”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여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만난 홍중학 장관과 박성택 회장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잡

재우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역효과를 우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책 당국과 기업 현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예정)까지 10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7.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과 명목임금상승률(3.3%)을 크게 웃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택 회장은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출해야 하는 임금인 만큼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이날 홍중학 장관과 간담회를 하게 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성토를 하다가

한 참석자는 “강한 톤으로 제대로 해 달라”고 현장 목소리를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 카드수

수료 추가 인하, 조달시장 저가입찰 개선,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확대, 외국인력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매년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1만원’에 맞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박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는 장관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본격실행

# 취약차주 채무조정요청 가능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도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

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함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퇴직연금 수익률 강통수준... '물가' 감안 댄 원금 밀돌아

(1.26%)

(1.5%)

DC형 퇴직연금 평균수익률 1.26%  
비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0.40%

꼬박꼬박 떼어가는 수수료에  
은행·보험사 등 운용사만 배불러

# 10년차 직장인 박모 씨는 요즘 퇴직연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지난 2009년 가입한 확정기여형(DC)형 연금의 누적수익률이 5.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만 하면 노후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 은행원의 말만 믿고 놔뒀던 게 잘못이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 5년차 직장인 김우울(30·가명)씨도 퇴직연금 명세서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몇해 전 연 4.8%로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는 금융인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 때문에 가입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가입 의무화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서다.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1.26%(은행 DC상품 기준)에 머물고 있다. 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퇴직연금 운용사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13개 시중은행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

(단위:억원, %)

	2018년 2분기		2017년		2017년말기준 연간 총 비용부담률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BNK경남은행	2,809	1.33	2,651	1.74	0.43
BNK부산은행	3,780	1.43	3,586	1.77	0.49
DGB대구은행	5,631	1.5	5,366	2.22	0.56
IBK기업은행	51,273	1.37	48,574	1.67	0.49
KB국민은행	62,119	1.27	58,784	2.13	0.62
KDB산업은행	3,032	1.28	2,874	2.02	0.56
KEB하나은행	28,768	1.28	26,792	2.01	0.52
NH농협은행	33,434	1.24	31,930	2.04	0.57
SH수협은행	0	0	0	1.56	-
광주은행	4,358	1.38	4,109	1.72	0.52
신한은행	58,051	1.68	55,417	2.17	0.66
우리은행	35,513	1.28	34,513	2.08	0.48
제주은행	824	1.6	756	1.71	0.42

/은행연합회

## ◆ 강통 퇴직연금 넣을수록 손해?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의 2분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0.91%에 비해 뒷걸음질 했다. 물가상승률, 기회비용, 수수료 등을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DC형은 회사가 납부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된 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관리해줄 기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가입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가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적립금을 운용한다.

13개 시중은행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강통 수준이다.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0.40%로 부진하다. 노후는 커녕 당장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BNK경남은행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은 -1.08%로 가장 부진하다. 부산은행의 상품도 -1.03%로 저조하다.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0.66%, -0.7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그나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40%로 지난해 말 1.48%보다 나빠졌다.

수익률은 강통수준이지만 은행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고 있다. 가입자들

이 지난해 이들에게 낸 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0.52%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생명보험회사의 6월 말 기준 직전 1년 DC형 평균 수익률은 1.92%에 머물고 있다. 물가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익률은 낮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2.16%에 불과하다. 이중 교보생명의 원리금보장형은 2%(1.94%)가 채 안된다.

이들 보험사의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12%였다. 이 중 IBK 연금의 수익률은 -8.15%까지 추락하면서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다. 삼성생명(-0.34%), 흥국생명(-0.39%), 교보생명(-0.08%), 동양생명(-0.72%)등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한화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의 3월 말 기준 DC형 평균 수익률은 2.13%였다.

확정급여(DB)형도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 13개 시중은행의 2분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13%에 불과하다. 12개 생명보험회사의 6월 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1.67%로 전분기 2.65%에서 급격히 나빠졌다.

## ◆ 월 198만원 필요한데...퇴직연금은 벌써 마이너스(-)

불안한 노후를 퇴직연금에 맡겨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직장인 이모(45)씨는 "당장 꺼내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며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과연 최선의 노후 대비용 투자인지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1953명(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74세 비은퇴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노후에 월 19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노후 대비로 저축하는 돈은 월 41만원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은퇴준비 수준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3층 구조의 한 축이라 말한다. 이대로 가다간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C형 가입자 비중은 2012년 34.7%에서 지난해 말 40.4%로 늘었다. 올 상반기(1~6월) 적립금액도 DB형은 줄어든 반면 DC형은 2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입자의 상품선택에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기업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등 노력”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200여개 가맹본부를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여개 가맹점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또한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 및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로 점주 단체 신고제와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박민용기자 parku7854@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보이콧' 가능한가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가맹점주 독려, 집단행동 추진

소상공인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고을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 총조사 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없으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로 처벌받는 것은 가맹점주들이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등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에 카드대금결제일 하루 단축

>> 1면 '금감원, 금융감독혁신...'서 계속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

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3조 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 청년실업률 바닥 치고 설비투자 감소 등 ‘어닝쇼크’ 에도

# “나의 사전에 양보란 없다” 귀족 노조의 마이웨이

(금융·공무원 노조)

## 실패의 경제

### 렌트싱킹과 집단이기

(시대추구)

#### (2)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금융·공무원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악을 달리는 청년실업률에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외친다는 설명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2012년 7.5%였던 실업률은 2014년 9%대로 경중 뛰었다. 이후 8~9%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9.2%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지고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소비의 개선 흐름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비투자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총파업 예고…“힘대힘” 으름장



현대차 노조가 12일 부분 파업을 벌이고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노조, 4.7% 임금인상 요구 사측, 1.7% 제시에 ‘협상 난항’

매출4%·영업익 45% 감소에도 현대자동차 노조, 부분파업 강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1일 제5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조합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이 전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3%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해 4.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63세로 정년 연장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시행(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채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여 보장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스터리쇼핑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1.7% 임금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 12일 ‘투쟁속보’를 통해 “이제 우리는 힘 대 힘의 대결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자동차와 조선 업계에서도 노사 분규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이후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자 ‘임투 속보’를 통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제시를 통해 지부 교섭위원들과 5만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조4366억원, 681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45.5%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인 9000억원 안팎을 밑도는 ‘어닝 쇼크’였다. 노조 측은 경제지표(4.7%)와 노동소득분배개선분(0.6%)를 합쳐 기본급 5.3% 인상을 요구했다. 성과급은 2017년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3일 특수선 노동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일한 일부 공무원, 성과제 빌미 쥐”

10년만에 정부와 교섭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과급(연봉)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성과연

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도 성과급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성과급제의 실체는 성과 평가라는 허울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신입 시절, 공무원 대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놀랐다”면서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타성에 젖어 일을 대강하다보니, 우리 팀에 발령 받고 와서는 한컴오피스 사용법을 물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반면, 똑같은 돈을 받으니 쉬운 일만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며 “성과 측정이 애매해서 문제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지표로 따질 수 없는 대국민 서비스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공무원이 자꾸만 빌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범홍 기자 joker@metroseoul.co.kr

## “乙과의 싸움 원치 않아” 정부에 功 넘긴 편의점주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인건비·임차료·출점경쟁 ‘3중고’ 5인미만사업장, 지원없이 생존못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을과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가맹본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가맹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 등 직격타를 맞게 됨에 따라, ‘24시간 운영 점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오전 전편협은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맹 수수료·임차료 그대로…생존권 위협하는 인건비

편의점 가맹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출점 경쟁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가맹 수수료율은 평균 25%~35% 수준으로, 내년도 월 매출과 판매 이익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점주의 수익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4일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주휴 수당과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셈”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맹 점주의 한 달 수익은 70만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는 50~60만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와 가맹 본사의 정책 사이에서 인건비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맹 점주들로서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익률 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대책 등이다.

협회는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행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을들의 싸움’…정부·가맹본부 대책 보완 필요

이날 전편협은 앞서 제기됐던 ▲공동휴업 ▲심야할증 ▲카드 결제 거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을과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전편협의 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 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편의점 업계가 두 차례 성명을 내놓았지만 가맹본부 내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한 본사 관계자는 “가맹 점주와의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은 언제든 열려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GS25 등 각 가맹본부에서 ▲가맹 점주들의 최저 수입 보장 ▲심야시간 운영점포 전기료 350억원 지원 ▲점포 근접 출점 자제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요구 사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본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행,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과거에는 직전 6개월 간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높으면 심야 영업 중단을 가맹 본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로 기간을 줄였다.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점포의 비중은 전체 업계 평균 10% 정도이지만,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가맹 본부보다 점주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점주들로서는 이 역시 ‘올며 겨자먹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협회에서 공동 휴업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와 가맹 본부에서 점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민서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SK(주)의 앰팩 인수 뒤엔 최태원 부녀의 큰 그림이...

# 아버지의 반도체 신화 이어... 딸은 '바이오'로 새 지평

〈최태원〉

〈최윤정〉



생산능력 연간 100만 l 로 확대돼  
'글로벌 1위 CDMO' 종합제약사로

투자전문 지주회사 SK(주)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의 바이오·제약 위탁개발·생산업체(CDMO)인 앰팩 파인 케미컬즈를 인수하기로 했다.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인수 합병결정의 의미를 두고 SK(주)의 이후 경영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씨(작은 사진)가 SK(주)의 자회사인 SK바이오팜에 입사하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SK그룹에 따르면 최윤정씨는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시카고대학 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지난 6월 SK바이오팜 수시채용으로 입사해 경영전략실 산하 전략팀에서 선임매니저(대리급)로 근무



앰팩사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Petersburg) 생산시설 전경.

/뉴스시스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바이오·제약 사업을 5대 핵심 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과도 결부시키고 있다.

앰팩을 인수합병하면 SK(주)는 국내 공장과 지난해 인수한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합쳐 연간 100만 l 의 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증설 작업을 통해 2020년 이후

총 생산능력을 연간 160만 l 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CDMO 업계 1위인 스위스 지크프리트(연 155만 l)를 제치고 글로벌 1위 CDMO가 된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1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전략에 부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AP

I)을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위탁 개발·생산(CDMO)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종합제약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우수한 레퍼런스라고 보는데 SK(주)가 최근 결정된 인수합병 방향이 바로 cGMP 생산설비와 레퍼런스 확보를 단숨에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한다.

최태원 회장이 근본적 변화(딥 체인지)를 전사적으로 주문하는 가운데 장녀 윤정씨가 SK바이오팜에서 일을 배우고 이후 그룹 혁신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K(주)의 바이오·제약 사업부문은 1993년 SK에너지 대덕연구소에서 시작했다. 이후 생명과학 사업부를 거쳐 2011년 SK바이오팜이 설립됐으며 2016년 SK(주)가 손자회사였던 SK바이오텍 지분 100%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인수합병에도 힘썼다. SK(주)가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에 출자한 금액은 이미 8000억원을 넘어 이번 앰팩

인수와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바이오·제약 투자규모는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하면서 SK(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제약사업을 5년 이내 최고수준 업체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스로 설정한 2022년 바이오·제약부문 기업가치는 10조원에 달한다. SK(주)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기존 핵심 고객사의 미국 현지생산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 중인 신생 제약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시너지 극대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GC 독실자는 미국에서 프리미엄 백신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5월 워싱턴주에 백신 개발 법인인 큐레보를 설립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유한USA를 설립하고 하반기엔 보스턴에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다. 두 법인을 신약 개발·바이오 벤처 투자·현지 연구개발 인력 확보 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美서 더 현대 프로젝트 '3D: 더블 비전'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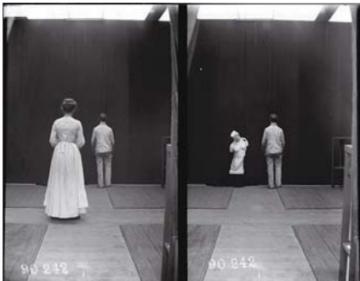
예술·기술 융합에 주목한 프로젝트  
3D가 미술사에서 구현된 계보 선포

현대자동차가 미국 LA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더 현대 프로젝트'의 신규 작품 '3D: 더블 비전' 전시를 시작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5년 현대차가 LACMA와 체결한 10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번이 4회째다. '더 현대 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아트+테크놀로지)에 주목한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젝트이다.

현대차는 '더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전시를 후원해 현대미술계 발전을 지원과 기술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감동을 창출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방향성을 알려오고 있다.

'3D: 더블 비전'은 VR, 3D 프린팅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분야의 시초이자 영감이 된 3D가 지난 175년간 미술사에



'더 현대 프로젝트'의 신규 작품인 '3D: 더블 비전' 전시작, 미국 심리학자 조지프 제스트로의 시각 인지 실험 입체 사진(1905).

/현대자동차

서 구현된 계보를 선보인다.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의 본질, 착시의 아름다움 및 '기술-기구-인간'이 맺는 관계 등을 다루는 이번 전시는 일상적 사물과 함께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총 60여점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두 눈으로 하나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합성하는 '양안시'가 3D의 시각적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등 3D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獨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출시

범용성·확장성·시스템 사후관리 등  
태양광 발전 사용가구 100만 이상

LG전자가 독일에 차세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가정용 ESS 시장이다. 이번에 LG전자가 독일에서 출시한 차세대 가정용 ESS 신제품은 ▲여러 변환장치를 통합한 범용성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확장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등을 갖췄다.

5kW급 하이브리드 전력변환장치(PC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바꿔주는 태양광 인버터와 생산된 전력의 출력을 조절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교류로 바꿔주는 배터리 인버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LG전자가 독일에 차세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출시했다.

/LG전자

기본 배터리는 6.4킬로와트시(kWh) 용량이지만 배터리팩 2개를 연결하면 12.8 kWh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다. 4인 가족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10~15kWh 정도이므로 배터리팩 2개만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전기를 충당할 수 있다.

LG전자는 독일 현지에서 가정용 ESS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부터 PCS, 배터리까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도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가정용 ESS 시장은 12만 대 규모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가정용 ESS 시장인 독일은 이중 3분의 1에 가까운 4만 대 가량을 차지한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가구가 100만 이상인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정용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독일에 가정용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으며 제작년부터 가정용 ESS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성능과 확장성이 대폭 향상된 신제품을 앞세워 독일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유럽 주요 국가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 샤오미 '레드미노트5' 출시... 국내 도전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자랑해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의 샤오미가 스마트폰 '레드미노트5' (사진)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샤오미는 국내 유통사 지모비코리아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레드미노트5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레드미노트5는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카메라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후면카메라는 레드미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듀얼카메라를 탑재했으며 1200만·500만 화소를 자랑한다. 위, 아래 카메라에 모두 삼성 센서를 장착했다.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기능을 통해 100%의 픽셀을 사용하도록 해 빠



636 칩셋을 탑재했으며 램(RAM)은 4기가 바이트(GB) 저장공간은 64GB다.

레드미노트5는 CJ헬로비전, SK텔레콤, KT, 하이마트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식 판매한다. 출가는 29만9000원이며 색상은 골드와 블랙으로 출시된다. 아이나비 전국 AS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제주항공, 국적기 첫 '자동탑승수속' 서비스

제주항공은 국적항공사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항공권 예매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좌석 배정까지 이뤄진 탑승권을 자동 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팝·사이판 노선 제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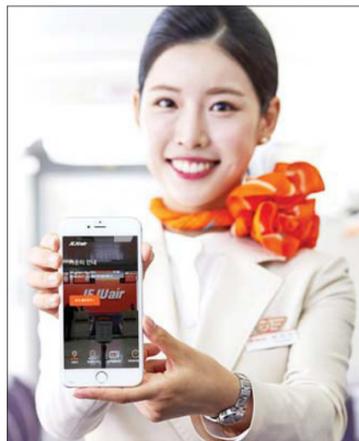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되며 좌석은 임의배정되지만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좌석으로 바꿀 수 있다. 부칠 짐이 없다면 좌석배정까지 마친 모바일탑승권으로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안수속을 받을 수 있어 공항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천공항의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탑승수속 과정에 보안인터

뷰가 필요한 미국령 괌과 사이판을 제외한 제주항공의 29개 해외 취항도시를 이용할 때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국가 입국에 필요한 비자 소지 여부나 편도항공권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모바일을 이용한 '자동탑승수속'이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탑승수속' 이후에 부칠 짐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수하물을 맡기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 즉 '스마트백 트랩'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국제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과 삼성동의 도심공항터미널, KTX광명역에서 탑승수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주항공 모바일 앱 GPS.

/제주항공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서비스는 괌과 사이판을 포함해서 당일 출발하는 예약이 확정된 항공권을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정영우 기자 yw964@

# 인재 키우고 사회공헌 하고... IT기업 코딩교육 '올인'

**넥슨** 청소년코딩대회 'NYPC' 개최  
**LG CNS** 찾아가는 코딩 무상교육  
**카카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대회

코딩 교육 과정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코딩 체험과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으로는 넥슨이 꼽힌다. 넥슨은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코딩대회 'NYPC(넥슨 유스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NYPC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넥슨 브랜드를 활용해 코딩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자 기획됐다. NYPC는 넥슨이 서비스하는 인기게임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실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상황에서 경험할 법한 상황을 문제로 출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익숙한 게임을 배경으로 원하는 상황을 구



NYPC 토크콘서트 전경.



제2회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시상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넥슨

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코딩이 교과목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도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넥슨은 멘토링 프로그램 'NYPC 토크콘서트'도 연다. 토크콘서트는 전문가들의 경험 공유 및 코딩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송호준 미디어 아티스트, 개발 분야의 넥슨 하재승 선임연구원, 교육 분야의 에누마 이권호 공동대표, 게임 분야의 넥슨 이은석 디렉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NYPC 공식 앱 버서더로 참가해 코딩과 관련된 경험담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NYPC 온라인 예선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80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 넥슨 사옥에서 본선 대회가 열린다.

LG CNS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중학생 대상 무상 코딩 교육 프로그램 '코딩 지니어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딩 지니어스는 사각지대 없는 코딩

교육을 목표로 코딩 전문가인 LG CNS 임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중학교를 찾아가 코딩의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학생들은 코딩로봇 실습이나 스마트폰 앱 만들기처럼 코딩의 작동 원리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LG CNS는 코딩 의무교육과정 편입에 따라 올해부터 '코딩 지니어스'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교육 횟수 및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과 저수

득층 학생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도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대회 '카카오 코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코드 페스티벌은 코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비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코딩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오는 8월 4일 온라인 예선이 열린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총 2560만원의 상금과 함께 카카오 입사 지원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 면제 혜택을 준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카카오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최근 코딩 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일반 청소년, 학생들이 코딩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자사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LG유플러스, 5G시대 1등 만들어달라”

**LGU+ 떠나는 권영수 부회장**

지주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이동  
(주)LG 하현회 부회장체제로 개편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주)LG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직원들에게 “1등 유플러스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회장은 16일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믿음직한 리더들이 있고, 강력한 팀워크와 열정으로 하나 된 직원들이 있기에 5G에서 유플러스가 반드시 일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 어온 권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주)LG 임



LG유플러스 떠나는 권영수 부회장. /LG유플러스

시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추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주)LG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권 부회장은 “1979년 LG전자에 입사하면서 LG와 인연을 맺은 후 여러 계열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이 중 LG유플러스에서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여러분과 함께한 노력 덕분에 각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며 “여러분에게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권 부회장의 뒤를 이어서는 (주)LG 하현회 부회장이 LG유플러스를 이끌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하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모델이 블랙베리 키2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 폰 하나에 번호 2개... '블랙베리 키2' 출시

**CJ헬로 헬로모바일** 사전예약 접수

CJ헬로 헬로모바일은 TCL의 '블랙베리 키2'를 단독출시하고 16일부터 사전예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블랙베리 키2'는 테두리를 없앤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하면서도 화면크기는 넓혔다. 또 키보드키보드를 20% 확대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다.

아울러 블랙베리 키2는 한국 블랙베리 최초로 '듀얼유심(Dual USIM)'을 적용

했다. 듀얼유심 폰은 심(SIM·가입자인증 모듈)카드 슬롯이 2개인 스마트폰을 말한다. 유심카드를 두 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말기로 서로 다른 이동사에 중복 가입할 수도 있고, 두 번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격은 실버 64GB는 64만9000, 블랙 128GB는 69만3000원이다. 단말지급금을 적용하면 3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사전 예약기간은 16일부터 25일까지다. 개통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 MINI 만나세요” | 바바리안모터스 공식 후원 '뉴 MINI' 등 차량 전시

MINI의 공식 딜러사인 바바리안모터스가 오는 7월 22일까지 열리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18'을 공식 후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바바리안모터스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영화제가 개최되는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뉴 MINI 해치 및 컨버터블 차량을 전시했다.

바바리안모터스에 따르면 2018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뉴 MINI 해치는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세련미와 강렬함을 극대화한 모델이며 함께 전시되는 뉴 MINI 컨버터블 역시 실용성과 독창성이 한층 강화됐다.

차량 전시와 더불어 시승 이벤트도 진행됐으며 전시 중인 MINI 차량 인증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MINI 바바리안모터스가 오는 7월 22일까지 열리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18'을 공식 후원한다. /MINI 바바리안모터스

이벤트도 진행했다.

바바리안모터스 이인석 대표는 “독특하고 기발한 장르 영화를 주로 선정해 상영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개성 넘치는 MINI 차량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져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BE

YOND AUTO, 자동차,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 문화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현대페이 암호화폐 지갑 '카세' 할인 혜택

현대페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하드웨어 지갑) '카세(KASSE) HK-1000(사진)'의 직영몰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오픈 기념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직영몰에서 구매 수량에 따라 최대 30%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13만원 상당의 카세를 9만8000원에서 최대 9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최고 수준의 보안집(CC EAL5+)을 적용한 카세는 블록체인의 기반인 하드웨어 지갑으로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



며 판매 중에 있다.

카세는 현재 대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큐텀 등과 지난 5월에 메인넷을 오픈한 에이치 닥 등 11여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현대페이 측은 '카세 HK-1000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을 추가적으로 7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ERC20 표준을 준수하는 더 많은 토큰이 카세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대출 규제에 은행권 ‘진땀’... ‘非이자 수익’으로 숨통

펀드·보험·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 신탁, 4대은행 효자 수익원 거둬 작년 동기비 675억 증가 ‘2679억’

가계대출 규제, 금리인상 제한 등으로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이 비이자 수익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신탁상품 확대 등 비이자이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 지방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이자이익 증가세보다 비이자이익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은행권 이익의 80%는 ‘금리’를 통해서 얻는 이자이익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은행권의 수익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이자이익에 확대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이자이익은 펀드·보험·신탁 등의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KDB산업은행 윤경수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

〈부분별 손익(신탁부문)〉

(단위: 백만원)

금융회사명	2017년03월말 당분기	2017년06월말 당분기	2017년09월말 당분기	2017년12월말 당분기	2018년03월말 당분기
국민은행	84,026	60,439	78,340	95,172	109,400
신한은행	38,141	45,431	48,787	52,681	54,806
우리은행	36,488	32,237	41,876	38,368	52,560
하나은행	41,831	38,333	45,900	48,347	51,317

산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은행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선 비이자이익 증가로 수익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부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구조는 여전히 이자이익(대출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올해 1분기에 거둔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28.4%(7000억원) 급감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비이자이익 비중(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합계 대비)은 9~17%에 불과하다. 이는 신탁의 비이자이익 비중인 약 2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 신탁, 비이자이익의 견인

국내 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 금리인상 규제 등 대출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신탁상품이 효자 수익원으로 거둬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K

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신탁수익이 267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기준 신탁수익 2004억에 비해 675억이 증가했다.

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주는 상품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 1분기 신탁 수익은 1094억원으로, 2017년 1분기 840억원에 비해 수익이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신탁’,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가입하는 보급형 상속·증여상품인 ‘KB금지옥엽신탁’ 등을 출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 부문이 주요 비이자이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 이자이익의 증가세보다 ‘비이자이익’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 1조646억원으로, 전년(9901억원)보다 7.5% 늘었다. 이중 비이자이익은 올해 1분기 625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560억원)보다 11.6% 더 늘었다. 이자이익 성장보다 비이자이익의 성장이 더 컸던 셈이다.

특히 BNK부산은행의 올해 1분기 비이자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197억원)보다 8.9% 증가한 가운데 부산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산은행과 같은 BNK금융지주 계열 은행인 경남은행도 비이자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급증했다.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경남은행도 비이자이익 증가세가 이자이익(5.3%)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우리카드, 페이코 포인트 ‘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16일 NHN페이코와 함께 ‘페이코(PAYCO) 우리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페이코 우리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및 월 적립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1.5%를 ‘페이코 포인트’로 월 최대 1만 점까지 제공한다.

비자 브랜드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최대 40% 할인, 호텔스닷컴 제휴페이지에서 350달러 이상 결제 시 50달러 할인, 진에어 수하물 우선하차 서비스, 국내 26여개 레스토랑 및 펍&라운지 웰컴드링크 및 무료 발렛카칭 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신청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페이코 모바일앱 설치 후 ‘제휴계좌·카



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가 완료된 카드는 실물카드를 받지 않고도 PAYCO 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는 간편결제 주 이용층인 2030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양자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 박용진 KB국민은행 법인장, 옥 반다 KB카보디아은행 부법인장,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전무, 후어 뿌티 KB국민은행 스터밍체이 지점장, 이우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5·6호점 연이어 오픈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13일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현지법인인 ‘KB 캄보디아은행’의 5호점 스터밍체이 지점과 6호점 츠바암포지점을 연이어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대표와 이우환 KB국민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KB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에도 3호점인 톨롬봉지점과 4호점인 락틀라지점을 개설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두 지점 모두 개점 1년만에 흑자

를 냈다.

프놈펜 신시가지 확장지역에 자리잡은 5호점과 6호점도 현지인을 지점장으로 임명했으며, 현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대출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대출 등을 중점 취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화 영업 전략을 통해 디지털뱅킹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현지인 대상 금융편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인간존중의 경영철학 사회공헌으로 승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총괄 위원장에 ‘박 승’ 전 한은 총재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자문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새롭게 발족한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5명의 외부전문가와 김한조 하나금융노년재단 이사장, 안영근 하나금융지주 사회공헌 담당 임원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 새터민 지원 활동 등 통일시대 준비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금융 강화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공헌 ▲빈곤 국가지원, 국제구호 등 글로벌 사회공헌 ▲자연사랑 미술대회, 글로벌



사회공헌위원회 발족 후 하나금융그룹과 근로복지공단간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뒷줄 왼쪽 세번째), 박 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앞줄 왼쪽 세번째),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 기준 준수 등 환경 보전 활동 등 그룹의 중장기 사회 공헌활동 방향 및 추진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박 승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은 보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공헌사업에 가장 앞장서 실천하는 금융그룹인 점을 감안해 이번 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며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많이 내고 경쟁에서 이겨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환영을 받

았지만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요구되고,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앞으로 사회공헌위원회는 인간존중, 휴머니티에 기반한 그룹의 철학과 미션을 근간으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

## NH농협은행

### 스마트리더 ‘100명’ 선정

NH농협은행은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뱅킹을 이끌어 나갈 현장전문가인 2018년 ‘NH스마트리더’ 100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NH스마트리더는 이(e)금융 제도·서비스에 대한 영업현장 의견 제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영업점 교육 등 영업 현장과 후선 부서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e)금융 마케팅을 주도하는 현장 디지털 금융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남열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NH스마트리더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맞손’

우리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특별출연해 9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선정한 첨단제조,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다.

혁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크게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단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절감할 수 있고, 최장 11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에게는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은 매년 0.3%포인트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지구의 에너지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시원한 지구를  
돌려주세요 건강한 바다를  
돌려주세요 지구에 힘이 되는 맹그로브 숲을  
지구에게 받은 에너지를 다시 지구에게 돌려주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맹그로브 숲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CO<sub>2</sub> 흡수량이 열대우림의 5배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맹그로브 숲,  
이 숲은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15,000평 규모의 실제 현장입니다





### NH투자증권 '더 드림' ELS 총 100억 판매

NH투자증권은 18일부터 20일까지 수익성을 한층 강화한 신상품 '더 드림(TH EDREAM)' 파생결합증권(ELS)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투자 기간 3년 동안 매년 상품의 연 수익률이 1%씩 상승하는 신상품이다. 기존 스텝다우형 ELS가 3년 동안 동일한 상품 수익률을 제공했다면 '더 드림ELS'는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더 지급함으로써 수익성이 한층 강화됐다.

ELS 16782호는 니케이225(NIKKEI 225),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 (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만기는 3년, 조기상환 평가 주기는 매 6개월로 조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 대비 90% 이상(6·12개월)이면 연 6.0%, 85% 이상(18·24개월)이면 연 7.0%(세전)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 대신증권 대신 ETN 홈페이지 오픈

대신증권은 16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대신ETN을 소개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한 '대신 ETN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증권) 강화의 일환으로, ETN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도 보다 손쉽게 ETN을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ETN 상품구조 및 특성은 물론 거래 구조와 과세, 거래방법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신ETN'란에서는 대신증권ETN 라인업과 상품별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가, 상품구조, 괴리율, 상장일, 만기일, 과세, 총보수 등 상품 개요와 기초지수 관련 사항 및 기간별 수익률도 조회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 KB증권 '헬로우 M-에이블' 이벤트

KB증권은 16일 MTS 'M-able(마블)'에 해외주식 기능을 추가해 해외 및 국내주식 MTS를 통합하고 이를 기념하는 '헬로우M-에이블(able)'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능이 통합된 'M-able'은 하나의 화면에서 해외·국내주식의 현재가 조회와 매매가 가능하고, 하나의 관심종목에서 해외·국내주식 조화가 가능해 전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KB증권은 'M-able'의 해외·국내주식 기능 통합을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헬로우 M-able'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 정지원 "국내 상장사에도 공시대리인제 허용"

(한국거래소 이사장)

## KRX, 하반기 코스닥 활성화 대책

1회 호가수량, 상장주식 1~2% 제한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거래소(KRX)가 추가적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주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1회당 호가수량을 상장주식의 5%에서 1~2%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잘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제도를 국내기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대리인제도란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 위탁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공시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공시규정을 숙지하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해당 제도는 공시유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심사 과정을 간편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량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심사종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상장의 문턱'이 아닌 '상장의 조력자'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오전 8~9시)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의 증가매매시간도 조정한다. 단축 시간은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사례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시가단일가 매매 시간은 10분, 싱가포르·홍콩은 30분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의 증가매매 시간과 중첩되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었다"면서 "시간 단축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등으로 촉발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

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장법인 임직원의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사주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장법인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바로 점검할 수 있어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대량의 착오주문 제출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을 제한한다. 기존 상장주식의 5% 수준에서 1% 또는 2%로 제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자본 시장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실무연구반을 조직해 남북경협시 자본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공모가 2만9800원 확정... 오늘부터 청약



주주 가치 극대화 위해 공모가 ↓  
상장 후 시가총액 약 4300억원



롯데정보통신 본사.

코스피시장 상장예정인 롯데정보통신 공모가가 2만98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16일 "수요 예측 결과 공모 희망가밴드(2만8300원~3만3800원)에서 3만1000원 이상 가격을 신청한 기관이 전체 7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공모가를 낮췄다"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기업 가치를 올려 주주 분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정보통신의 공모가 확정 공시

에 따르면 국내외의 총 423곳의 기관이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경쟁률은 79.33대 1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정보통신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최종 협의의 끝에 2만9800원으로 공모가를 정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오는 17, 18일 이

틀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300억원 규모다. 해당 자금은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개발, 글로벌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chain),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의료·유통·결제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

마음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상장 후에도 정보기술(IT)신기술을 기반으로 대외 및 글로벌 시장확장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 미래에셋대우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인재육성 힘쓴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체류,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Global Leader Development Programme)은 혁신적인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내 공모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네트워크 10개국 14개 거점(현지법인 11개, 사무소 3개)에서 3개월부터 1년동안 연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현지 문화와 언어 습득,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홍콩 회장 겸 글로벌투자전략책임자(GISO)는 "미래에셋그룹이 고객의 사랑과 사회에 보답하는 길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육성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도에 발맞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에셋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재단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국내 장학생 제도와 더불어 미래에셋 해외교향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600명씩 선발, 해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 외국인, 석달째 매도 공세... 지난달에만 7150억 순매도

코스피 시장서 1조2000억 팔아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 기준)

구분	'17년	'18년		5월	6월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주식	10,180	10,894	△714	△3,900	△380	596,891
채권	9,447	14,520	△5,073	12,022	3,266	110,562
합계	19,627	25,414	△5,787	8,122	2,886	707,453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150억원을 순매도해 지난 4월 이후 매도세를 지속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2000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5000억원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8000억원), 미국(-1000억원) 등은 순매도했으며, 아시아(1조8000억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2000억원), 케이맨제도(-3000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 싱가포르(1조4000억원), 호주(1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5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9조3000억원

(외국인 전체의 41.8%)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3조6000억원(29.1%) ▲아시아 71조8000억원(12.0%) ▲중동 22조9000억원(3.8%) 등의 순이다.

반면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는 7조789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610억원을 순투자했다.

순투자 규모는 5월보다 줄었지만 6월 말 기준 총 110조6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4%)을 보유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2000억원), 유

럽(9000억원), 미주(5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50조4000억원(전체의 45.6%), 유럽 35조2000억원(31.9%), 미주 10조9000억원(9.9%)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국채(3조3000억원)는 순투자하고, 통안채(-1조4000억원)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2000억원) 및 5년 이상(7000억원)에 순투자하고, 1년 미만(-1조8000억원)은 순유출됐다. /안상미 기자 smahni@

# 공정위, 납품단가 깎기 한번만 해도 '공공입찰 퇴출'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기계 등 전속거래 실태조사  
기술자료 유용·유출 검찰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유통 갑질 근절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경화 대책을 내놴.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美 관세 위협에 노조파업 예고까지...

# 車·조선업계 '옆친데 덮친 격' 시름 깊다

현대차 노조, 추가파업 논의 계획  
영업적자 현대중도 19일 파업 예고

최근 판매부진과 수주 물량 부족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이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매년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 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추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파산을 면한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관세 위협과 판매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 처한 현대차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현대차 노조는 이번주 협상에 집중하면서 서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노사 간 임금과 성과급 인상, 주간연속 2교대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우선 기본급 대비 5.3%인 11만 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건물 앞 도로가 공사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의 영향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지,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입장 차이가 큰 상태다.

국내 조선사 '빅3'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노조의 파업에 발목잡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 일정을 공개하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금용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분기 123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역시 876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쟁대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7월 말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주까지 한계점으로 보고 파업 일정을 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일단 파업과 함께 교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각 지단별(사업부별) 순회 철야 농성도 벌인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기본급 동결 등의 개정안을 노조에 제안한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로 예고된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3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는 기본급 4.1% 인상을 요구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10% 반납, 상여금 분할지급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 입장차가 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려 13조 7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운영 중이다.

/성성운 기자 ysw@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존중  
대선 공약 못 지키게 된 것 사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할 바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늘어나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열어 공약에서 멀어지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인상을 한 자릿수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였던 지난해 당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16.4%로 대폭 인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사실상 또다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불참속에서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 "계엄령, 실행준비 됐었는지 확인 필요"

文 대통령, 軍 모든문건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훗날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국내 모든 문건을 직접 챙겨보기로 했다.

지난 10일 인도 국민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에 관련 모든 문서를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강력 지시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

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아파트 거래량 66% 감소

# 거래 '뚝' 일요공사 '스톱'... 규제 일색에 부동산 고사 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4830건 기록  
2012년 6월 이후 6년만에 '최저'  
건설노동현장 관리는 탁상행정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  
에 건설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래절벽 상태다.  
보유세 개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예  
고로 관망세에 접어든 탓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66%나  
급감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에 더해 일  
요휴무제까지 도입돼 건설업계가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보유세에 공시가격 ↑... '거래절벽'

16일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량은 4830건으로 전년(1만4304건) 대비  
66.2%(9474건) 감소했다. 지난 2012년 6  
월(3091건)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강남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  
래량도 총 506건에 그쳤다. 1년 전  
(2796건)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줄어든 수  
준이다. 특히 강남구는 6월 한 달 동안  
122건 거래에 그쳤다. 이는 2013년 7월  
(99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 4건에 불과했던 셈이다. 서초

〈서울 및 강남3구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2017년 6월~2018년 6월)〉

구분	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시	14304	14,461	14,678	8,231	3,777	6,404	8,295	10,203	11,117	13,830	6,222	5,492	4,830
강남구	1,030	1,014	1,049	471	205	426	722	690	767	774	187	175	122
서초구	694	652	742	381	183	348	433	519	534	558	168	186	195
송파구	1,072	1,065	1,007	599	243	507	675	825	880	796	256	223	189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자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존  
중받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열린 2018 총파업 총력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말뉴스

구도 6월 거래량이 175건, 송파구도 181건  
으로 각각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은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환수,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를 내  
놓고 있다.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와 고가

(高價)주택 보유자를 잡으려는 조치다.

특히 10년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이 아파트 거래절벽을  
심화했다. 주택 보유자들이 구체적인 정  
책이 나오기 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한 탓  
이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검토돼 거래 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토  
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  
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  
세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  
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의 60~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관행  
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에 일요휴무까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집값 안정  
화를 시도하는 한편, 건설노동현장 안전  
관리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건설현장 안전사  
고 등을 막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건설시  
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  
적으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일요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  
후 토요일로 확대하거나 민간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무리한 노동 강도  
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 전국건  
설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총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일요일도 없이 팽  
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시간의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중노  
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요휴무제 도입에 건설업계가  
난감해졌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도  
입된 가운데 일요휴무제까지 시행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 특히  
공공 건설의 경우 일요일에 공사를 쉬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밀그림 세종 '공유차'·부산 '친환경' 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밀  
그림이 나왔다.

세종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가 조성되고, 부산엔 수  
변공간을 이용한 물 특화 도시가 생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  
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  
터에서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에서 추진  
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  
상을 공개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는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  
증·접목하고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 미  
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을 제시하기 위  
해 추진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시 연동면 5-1생  
활권(274만㎡)과 부산시 강서구 예코델타  
시티(219만㎡) 두 곳이다.

세종은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  
수가, 부산은 영국 스타트업 육성 기업인  
엑센트리의 천재원 대표가 각각 총괄책  
임자(MP·Master Planner)를 맡아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시  
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  
는 지속가능한 도시 플랫폼'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모빌리  
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4개 핵심요소를 내세웠다.

우선 공유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신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  
하는 입구에 주차하게 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차와 공유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  
동하는 교통 체계다.

도시 공간체계를 기존의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리빙·소  
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  
는 도시'를 조성한다.

부산 예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  
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 /국토교통부



부산 스마트시티 구상안. /국토교통부

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주변을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 '물 특화 도시'(Smart Wa  
ter City)로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활용한다.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  
너지·에코필터링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  
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을 조성한  
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하  
는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신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한 양질  
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정부는 기본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기술  
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 지원, 해외진  
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1년 말 입  
주를 목표로 조성된다. /채신화기자

## “매매·전세·월세 ‘보합’... 지방은 먹구름”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 '보합' 전망  
매매 '48%' 전세 '55%' 월세 '59%'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모두  
'보합'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의 매매  
시장은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6000여명(응답  
2244명)의 협력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  
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반기 주택 가격에 대  
해 매매·전세·월세 모두 보합으로 예상한  
응답비율(매매 48.1%, 전세 55.0%, 월세  
59.5%)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매매·전세·  
월세 모두 보합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의 경우 매매는 하락  
(55.3%)하고 전·월세는 보합으로 응답한  
중개사들이 많았다.

매매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은 보합 응  
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서  
울(62.3%)과 수도권(55.4%)도 보합 응  
답이 많았으나, 지방(55.3%)은 하락 응  
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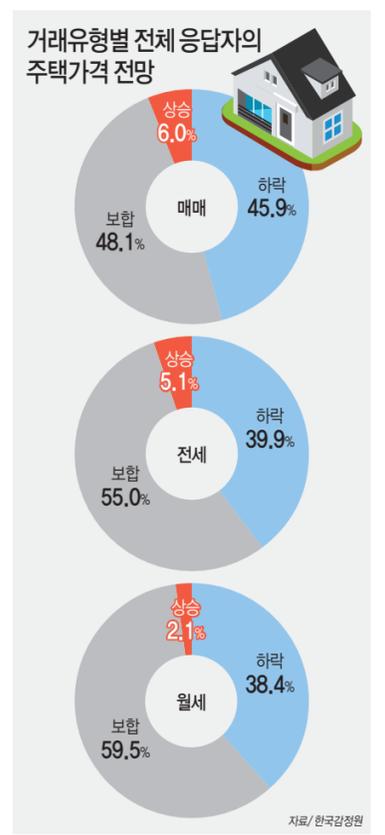
우세했다.

하락(45.9%)을 전망한 이들은 ▲공급  
물량 증가(신분양, 입주물량, 미분양 등  
증가)(38.8%) ▲대출규제 강화(LTV, DT  
I, DSR 등)로 차입여력 축소(24.0%) ▲보  
유세 개편,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  
(20.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 상승(6.0%)을 전망한 이들은 ▲  
선도지역 및 인근의 가격상승 영향으로  
갭매우기(25.4%) ▲재건축·재개발 등 정  
비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20.9%)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세시장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가격 전  
망도 보합 응답(55.0%)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도 서울(64.7%), 수도권  
(55.4%), 지방(54.4%) 모두 보합 응  
답이 우세했다.

하락(39.9%)을 전망한 이들은 전세 공  
급물량 증가(55.4%), 매매가격 하락에 따  
른 전셋값 동반하락(3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상승(5.4%) 전망의 경우 임대인  
의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공급 감소  
(32.2%) 등을 근거로 밝혔다.

월세시장도 보합 응답(59.5%)이 가장  
많았다. /채신화 기자



## 48억 '나인원한남' 임대계약을 90% 돌파

(임대보증금)

고급주택인 서울 용산 '나인원 한남'의  
초기 임대 계약률이 90%를 넘었다. 정부  
가 고가(高價) 주택에 과세를 강화해도  
'뚝뚝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  
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이 지난 9월부터 이 아파트  
341가구에 대한 임대 계약을 진행한 결과  
90% 이상 계약됐다.

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지상 5~9층 9  
개 동의 중저층 단지로, 전용면적이 206~  
273㎡에 달하는 초대형 주택이다. 고급 분  
양주택으로 기획했던 나인원 한남은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문  
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 33억~48억원(월 임대료 70만  
~250만원)이 책정됐다.



높은 임대보증금에도 청약 수요가 높  
았다. 지난 2일 인터넷 청약에서 총 1886  
명이 신청해 평균 5.5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채신화 기자

Angel-in-us Coffee®



# 아메리치노·달콤한 우유와 만나다



New

아메리치노 라떼



커피를 사랑하는 엔제리너스 커피는 SCA, ACE 국제 스페셜티 협회 공식 회원사입니다.

베이징 등 글로벌메가시티 천만 소비자가 뽑은 히트템은?

# 지구촌은 지금 ‘스마트·자연주의 홈&리빙’에 꽂히다

## 코트라 보고서

인테리어와 조화 이루는 가전 인기  
식물소품·자연광 조명 힐링 삶 지향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 메가시티에서 사랑받는 히트 홈&리빙 제품은 ▲디자인이 강화돼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홈 기기 ▲사이즈는 줄이되, 기능은 강화한 콤팩트 가전·가구 ▲자연과의 거리를 좁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연주의 아이템 등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16일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홈&리빙(住)’란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스톡홀름, 시드니, 자카

르타 등 주요 10개 대도시에서 인기몰이 중인 상품을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현지 홈&리빙 업계 주목도와 소비자 호응을 고려해 코트라 무역관이 엄선한 30여개 홈&리빙 히트상품이 생생한 소비자후기 및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담겨 있다. 보고서 상 홈&리빙 제품은 가구, 가전, 스마트홈 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홈 기기는 오늘날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소비자는 스타일러 등 스마트 가전을 구입할 때에도 전체 인테리어와 조화를 잘 이루는지 따지는가 하면, 기본에 따라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조도나 색상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을 구입한

다. 이처럼 스마트홈 기기를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스마트 홈테리어(홈 인테리어)’ 경향은 나만의 공간인 집을 개성 있게 꾸미고 이를 SNS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작지만 강한 콤팩트 가전·가구 트렌드에도 주목해야 한다. 군더더기 기능은 과감하게 없애 부피를 대폭 줄이고, 시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은 더욱 강화한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 개조해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블 가구나, 벽을 활용한 선반가구, 8리터 규모의 초미니 냉장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사로부터 해방되고자 작은 크기의 로봇청소기나 식기세척기 등 콤팩트 가전을 구입하는 1인 가구, 맞벌이, 시니

어가정도 늘고 있다.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열망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에는 파티오(테라스, 주택 내 정원, 베란다 등 실내와 실외가 혼합된 공간)가구를 배치해 자연 가까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실내에는 스마트 재배 기술을 활용해 플랜테리어(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식물을 소품으로 적극 활용한 인테리어)를 꾸미는 등 가구는 밖으로, 자연은 안으로 들어 자연과 일상을 연결하는 제품이 인기로 나타났다. 신체 리듬을 자연의 속도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자연광 조명이나, 태양광 에너지 활용 난방기구 등도 자연주의 트렌드에 부합한 히트 사례로 꼽혔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홈&리빙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조119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전·가구 가격이 대폭 하락해 매년 성장률이 0~1%대에 그친 데 비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실내장식이나 스마트 홈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 2%대 성장률은 2022년까지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고 스마트홈이나 가전이 아직 많이 보급되지 못한 신흥시장에서는 열악한 인프라에 맞춰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별화된 제품과 인력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6월 거주자 외화예금 역대 최대폭 감소

### 한국은행 “원화 약세 영향”

지난 6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은 676억2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71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는 거주자 외화예금 규모는 올해 3월까지 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환율이 급락하면서 석 달 연속 137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외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외화 예금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

이 감소한 탓이 크다. 달러화 예금은 58억9000만 달러 감소한 56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화와 유로화 예금도 감소했다. 엔화 예금은 4억9000만 달러 감소한 44억3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4000만 달러 감소한 36억1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물환 매도 증가 등으로 큰 폭 감소하고 엔화 예금 및 유로화 예금도 원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533억5000만 달러 개인예금이 142억7000만 달러로 각각 64억6000만 달러, 7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 역할을 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반도 평화 기념메달’ 공개 한국조폐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충정로 풍산빌딩에서 ‘한반도 평화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별 들던 유통株, 최저임금 8350원에 ‘털썩’

유통업지수 10.28% 하락  
편의점 관련 주가 타격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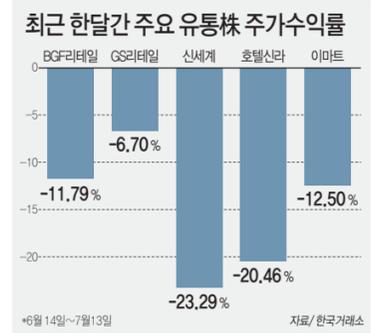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6월 14일~7월 13일) 유가증권 시장 유통업 지수는 10.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폭(-6.39%)보다 가팔랐다.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 중 편의점 관련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없지만 폐업을 하는 점포가 늘어나거나 본사의 상생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최근 한달 간 주가가 11.79% 떨어졌다. GS편의점 본사인 GS리테일 역시 해당기간 주가가 6.70% 하락했다.

김영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편의점 폐점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편의점 업계 폐점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GS 편의점 폐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86% 늘어난 285개에 달했다. CU 역시 58% 늘어난 273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폐점수가 늘어날 수록 본사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리스크 해소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다른 유통업종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7.1%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최근 한달 간 주가가 23.29% 급락했다. 연 초 이후 6월까지 40% 이상 오르며 상승하던 주가가 고꾸라진 것이다. 호텔신라 역시 연 초 이후 6월까지

50% 이상 급등했던 주가가 이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호텔신라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가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유통업종 전반의 약세장을 피하지 못했다. 이마트 역시 한 달 동안 주가가 12.50%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하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1분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 100억원, 60억원의 인건비 증가 부담이 있었지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전년 대비 낮은 만큼 인건비 증가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건비 부담에 따른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마트, 신세계, 호텔신라 등은 유통업종이긴 하지만 인건비 외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편의점 업계의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는 최근 수년에 걸쳐 정규직 전환, 임금 구조 개편을 통해 2019년 인상분 수준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 홈쇼핑 등도 최저임금 해당 고용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해외소비자들 “韓 IoT 성능 좋지만 비싸”

### 향후 구매의향 1위 ‘스마트 가전’

해외 주요 소비자들이 한국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해 상품 신뢰도, 브랜드 매력도, 성능을 높이 평가한 반면 내구성, 높은 가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IoT 시대, 5개국 소비자의 인식 비교 연구’에 따르면 IoT 제품 구매자가운데 56%는 한국 IoT 제품 구매경험이 있고 ‘낮은 내구성’과 ‘비싼 가격’을 단점으로 꼽았다. 해당 조사는 한국·미국·일본·중국·독일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중국이 ‘내구성’이라고 응답했고 일본과 미국 소비자는 ‘브랜드 매력도’를 지적했다.

반면 강점으로는 ‘상품 신뢰도’(47.7%)와 ‘브랜드 매력도’(46.4%), ‘성능’(45.8%) 등이 꼽혔다.

한국과 중국이 ‘브랜드 매력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고 미국·일본·독일은 각각 ‘상품 신뢰도’(60.9%)와 ‘저렴한 가격’(61.5%), ‘뛰어난 성능’(60.7%)을 최대 매력요인으로 지목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향후 구매의향이 있는 한국 IoT 제품은 ‘스마트 가전’(59.1%)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 조명 및 전구’(42.3%)와 ‘스마트 도어락’(32.4%)이 뒤를 이었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스마트 가전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은 ‘구매하고 싶은 한국산 IoT 제품이 없다’는 응답이 57%나 차지,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IoT 제품 구매 경험은 ‘중국’(48.5%), ‘한국’(29%), ‘독일’(24%), ‘미국’(21%), ‘일본’(14%) 순으로 기록,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돋보였다.

실제 중국은 관심도에서도 가장 높은 84.5%로 최하위인 일본(51%)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향후 IoT 제품의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중국(95.5%)은 한국(82.5%)은 물론 미국(71.5%)·독일(67.5%)·일본(42.5%) 소비자를 크게 앞섰다. 5개국 모두 사고 싶은 IoT 제품 1순위 역시 ‘스마트 가전’이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백운규 “규제혁신… 기업위한 산업부 될 것”

(산업부 장관)

## 산업부, 12대 기업 CEO 간담회

“규제혁신 등 통해 기업투자 지원”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규 투자를 막는 규제 개선,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 신산업과 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장관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안착, 통상현안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

최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지난달 발표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

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단순히 기업 건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담당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아차 박한우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한화 최선욱 사장, 현대중 권오갑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GS 정찬수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공기업이 제외되고 산업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12대 기업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간담회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해수부

## 로마 FAO수산물위원회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험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100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제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신용 기자

## 노동부-고용정보원

##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7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17에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리베로호텔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준·평가지표·참여방법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성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구직자가 신뢰하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인증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돈자조금

## 나눔캠핑 페스티벌 성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15일에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2018 한돈과 함께하는 나눔 캠핑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캠핑 시즌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돼지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 저지방부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한돈 전체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행사는 참가비 전액과 한돈 상당량을 전달하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에 기부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총 54팀이 참가한 이번 캠핑은 참가 가족 전원에게 한돈 삼겹살, 한돈 불판, 한돈 기념품 등 풍성한 참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한돈 아수리장(물총싸움), ▲한돈 보물찾기, ▲버스킹 공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美·中 무역분쟁, 기술혁신·신시장 개척으로 정면돌파”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 232조·FTA정책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의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주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이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수출 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예로 발굴·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남방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업부, 21개 지방기업에 673억 지원

전북 6곳·충남 2곳·경북 3곳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개 기업에 총 67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원, 충남 2개 기업에 120억원, 경북 3개 기업에 89억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원 및 기타 지역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기업에 276억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원, 전기전자 2개 기업에 25억원 및 기타 업종에 19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기업은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한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주담대 기준 ‘코픽스’ 10개월째 상승

은행聯, 전월대비 0.02%p ↑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코픽스가 잔액기준으로 1.85%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1.84%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

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기준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이용섭 광주시장, 14대 핵심공약 제안

#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

민선7기 세부실천계획 본격화

일자리·골목상권 활성화 등 포함

광주광역시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시정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로부터 이용섭 시장이 출마선언 이후 시민들께 약속한 '1자리2용성 12대 시민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14대 핵심공약과 74개 실천과제를 제안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4대 핵심공약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유치 ▲민주·인권·평화세계중심도시도약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동행(同行) ▲노후가 걱정없는 행복한 광주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문화수도 광주 '컬처 유도피아' 선포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광주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 ▲맑



이용섭 광주시장

고 깨끗한 푸른 광주 만들기 ▲세계적 수준의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등이다.

이 핵심공약과 실천과제는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의 시정 비전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인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각 실, 국, 본부, 직속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광주혁신위원회와 토론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연차별 추진일정, 사업비 투입구

모, 실행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장 주재 '주요 역점시책 및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 확정 전까지 수시로 실·국별로 학계, 전문가,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자문을 거쳐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8월중 공약평가 시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해 시에서 수립한 공약실천 계획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등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 민선 7기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재중 시 정책기획관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성남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 특별판매

성남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 상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성남시청서 특판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3번째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특판전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중 10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주력 상품)은 성남시 관내 기업인 알디앤웨이(등산화), 영이너품(기능성 속옷), 베스트프렌드(아동 내의), 팀스포츠(등산 의류), 석촌도자기(주방용품), 성화물산(기능성 양말), 서한섬유(신사 양말), 에스제이테크(가죽 제품), 로만손(시계류), 신영스텐(냄비류) 등이다.

모두 100여 개의 품목을 정가보다 최

대 7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앞선 3월 26~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특판전 때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는 행사기간에 738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판매액은 주최 측이 개성공단 폐쇄(2016.2) 이후 전국 공공기관 등을 돌며 진행한 특판전 16회 평균 매출 2100만원(지난해 말 기준)과 비교하면 3.5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는 기업들을 위해 특판전 행사 이외에 개성공단 기업 맞춤형 재도약 사업, 경영정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김승열 기자 kimsy@



성남시가 지난해 7월 24~26일 성남시청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 특별 판매전. /성남시

## 경기도, 동북부지역 개발·지원방안 마련

새로운경기裘 "지원예산 마련할 것" 재산권 행사 제한·소음피해 등 보상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은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웅천,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조웅천 새로운 경기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남양주 갑)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소음측정망 설

치를 비롯해 민공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전체면적(4266㎢)의 44%(1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고성철 기자

### 광주 서구 등산로 담은 청사 '건강계단' 눈길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청사내 비상계단에 등산을 테마로 한 건강계단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평소 바쁜 업무로 운동할 여유가 없는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와 함께 계단 이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다.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계단 시안이 선정되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되었다.

지하2층부터 지상8층까지 조성된 건강계단에는 각 층별로 등산 초입부터 정상

까지 구간별 산길 이미지를 실사로 표현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숲 이미지와 자연의 새소리, 천연 숲 향기 벽지 등 자연스러운 등산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비상계단 조도시스템을 보완해 어두웠던 계단을 밝게 조성하고, 건강정보, 생활 상식 등을 표시해 지루할 수 있는 공간에 재미를 더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강계단을 오고가는 중 인사와 대화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조 논문 '화제'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

경기북부 구급대원이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 실험으로 모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파주소방서 김종호 소방교(사진)가 최근 SCI(E)급 국제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 승인 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목은 '기계압박과 성문위기도기가 유효혈류시간에 미치는 효과 :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병원 전 심정지 현장 시뮬레이션 연구'란 주제로 SCI(E)급 국제 학술지인 'Emergency Medicine International' 온라인 판에 지난 4일 게재 승인됐다.

김종호 소방교의 논문은 외국보다 저조한 국내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연구다. 특히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주거 특성상 환



자후송 시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층건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기계압박 장치와 성문 위기도기의 효능을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정리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방법보다 기계압박 장치 또는 성문위기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슴압박 중단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기계압박 장치와 성문위기도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 경기도, 산메기 2000마리 백둔천에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생산한 미유기(산메기, 갈딱메기) 2000마리를 16일 가평군 백둔천에 시험방류했다.

올해 생산한 미유기 치어는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뿐만 아니라 500마리는 양식산으로 관리하던 2세대 어미에서 나온 3세대 치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자연산 어미만을 이용하던 양식방법을 벗어나 완전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가평군은 지난 2015년 미유기의 종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미유기 양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생산해 방류하는 미유기(산메기, 갈딱메기) /경기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 해부터 미유기 치어생산에 이용한 어미와 방류할 미유기 치어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방류효과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미유기 양식에 필요한 전용사료개발을 위해 기초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 인천시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하절기 폭염발생 등에 따른 전력사용 급증에 대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봄 조성을 위해 '릴레이 민·관 합동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일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시장, 역사, 대형 할인매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열관리공협회 인천광역시회 등 25개 기관·단체 총 487명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http://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 편의점·호텔서 원기회복... '보양식 新 풍속도'

초복은 삼복(초복 중복 말복) 중 첫째 복으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불과 몇해전만해도 삼계탕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해 입맛과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보양식의 폭이 넓어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보양 간편식도 인기다. 2018년, 과거와 달라진 초복 풍경을 살펴봤다.

## ◆초복=삼계탕? 공식 깨졌다

16일 모바일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매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전복 판매가 크게 늘어나 즉석 삼계탕의 매출 규모를 추월했는 뿐 아니라 신장률도 258%로 보양식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티몬에서 판매된 삼계탕과 장어, 전복, 한우 등 보양식 매출은 47%가량 상승했다. 이 가운데 전복이 258%로 매출 증가세가 가장 높았으며 대표적인 복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즉석 삼계탕 매출을 추월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복 매출은 즉석 삼계탕 매출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전복 매출이 즉석 삼계탕보다 커졌다.

전복에는 추월 당했지만 간편

삼계탕보다 전복 매출 크게 올라

보양 도시락·장어구이·수박 등

편의점·마트서 복날 음식 선택

호텔서 즐기는 '특급 보양식' 인기

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삼계탕 매출 신장률은 74%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뒤이어 장어는 62% 매출이 늘었고, 훈제오리 57%, 한우 26%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생닭 등 삼계탕 재료는 30% 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보양식 매출 상승세는 40대이상 연령층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양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는 40대이상으로, 전체 보양식 매출의 48%를 차지하며 30대(40%)를 추월했는 뿐 아니라 신장률도 62%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보양식 구매자 가운데 30대가 43%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티몬 관계자는 "올해 전복 판매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다. 올해 초부터 전복 가격이 인하되며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혼자여도 괜찮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 간편 먹거리로 복날 기분을 즐기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먼저, GS25는 올해 복날을 겨냥해 보양 도시락, 삼계탕, 1/8 통 수박 등 다양한



고객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반계탕 가정간편식을 고르는 모습. /롯데마트

소포장 간편 먹거리를 판매한다.

초복 전날인 이달 16일부터 중복 당일인 27일까지 시즌 한정으로 '유어스 보양 한정식 도시락'(이하 보양 도시락)을 판매한다. 보양 도시락은 대표적인 보양 식재료로 알려진 민물장어구이와 오리고기를 메인 메뉴로 구성해 복날에 즐기기에 좋은 먹거리로 개발됐다.

복날 인기 먹거리인 삼계탕과 수박도 1~2인 가구 고객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출시했다.

1등급 냉장담만을 사용하고 6가지 국

내산 한약재 티백과 수삼 등을 넣어 담백하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유어스삼계탕과 수박 한 통을 8등분한 크기의 1~2인 가구용 '시원할 수박'에 바뀐 복날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롯데마트 역시 '요리하다 수삼 반계탕'과 '해피 참건강한 반계탕' '하림 반 마리삼계탕' 등 1~2인 가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계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00g~150g 단위로 소포장된 소고기와 소포장된 전복을 판매하고 있다.

## ◆호텔에서 즐기는 볼도장과 볼로탕

초복을 맞아 신라호텔은 건강과 입맛을 사로잡는 '특급 보양식'을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에서는 초복 더위에 지친 심신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흑삼 볼도장'을, 제주신라호텔 더파크뷰 뷔페에서는 '흑삼 볼로탕'을 맛볼 수 있다.

'팔선'은 '흑삼 볼도장'을 선보인다. 흑삼은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린 것으로 사포닌 함유량이 보통 인삼보다 높아 여름철 지친 체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게다가 송이, 해삼, 전복, 오골계, 건판자, 홍삼 등 귀한 식재료가 모두 들어갔다.

제주신라호텔 더파크뷰 뷔페에서는 제주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특급 보양식인 '흑삼 볼로탕'을 디너 시간 한정으로 선보인다.

제주 로컬 식재료인 닭고기, 돼지고기, 표고 버섯과 전복, 판자, 도가니, 자연송이, 흑삼 등 12가지 이상의 고급 식재료로, 이들에 걸쳐 6시간 이상 끓여진 한 육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픽스타·유투이미지



## "삼계탕, 알고 먹어야 더 맛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상징인 삼복(三伏)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보양식을 찾는다. 그중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삼계탕'이 최고다. 농촌진흥청이 초복(17일)을 앞두고 삼계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자료를 배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삼계탕은 원래 '계삼탕'으로 불렸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주재료가 닭고기와 부재료가 인삼이었기에 본래 계삼탕으로 불렸지만 닭보다 인삼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지금의 이름인 삼계탕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삼계탕을 복날에 먹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복(三伏)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에 몸 밖이 덥고 안이 차가우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쉽다.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으로 따뜻한 기운을 내장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계탕을 복날에 먹게 됐다. 지금의 삼계탕 형태는 1960년대 이후, 대중화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마지막으로 삼계탕은 모든 체질에 다 맞을까? 닭과 인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다.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보다 황기를 넣거나 차가운 성질인 녹두를 더해 몸속의 열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뉴스킨 코리아 '다 엄마다' 5기 수료식 성료

###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뉴스킨 코리아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 시립루씨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다(多) 엄마다'의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多) 엄마다'는 뉴스킨 코리아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Force for Good) 후원회'가 부모교육 전문기관인 사람가족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과정이다. 2016년 3월 첫 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총 159가족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이번 5기에

는 18가족이 총 7회에 걸쳐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수료식은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을 비롯해 5기 과정 이수 가족,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多) 엄마다' 프로그램을 마친 가족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달 간의 활동 사진을 전시한 '다(多) 엄마다 스토리 사진전'도 함께 열었다.

특히, 이번 5기 과정은 부모 교육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직접 교육으로 실시됐다. /김민서 기자

## LG화학 '이브아르'와 함께하는 '글로벌 뷰티 토크' 개최

LG화학이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YVOIRE)의 유럽시장 육성을 위해 유럽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LG화학은 국내 거주하는 유럽 각국의 소비자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뷰티 트렌드와 현지시장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는 '글로벌 뷰티 토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글로벌 뷰티 토크'에서 나올 소비자 관점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향후 유럽 마케팅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시장에서 미용



LG화학이 글로벌 뷰티 토크를 개최했다. /LG화학

성형 관련 소비자 성향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LG화학은 2016년 중국 시장점유율 1위

에 오른 이후 2년 연속 선두를 지키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 '페인트 유어 드림' 선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은 여름 방학 및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자녀의 예술감성을 일깨우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페인트 유어 드림(Paint Your Dream)'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숙 가능한 이번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3

인 조식 뷔페(성인 2인 및 어린이 1인),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 에르베 뮐레 색색깔깔展' 3인 입장권 및 어린이를 위한 1인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창의 예술가로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이자 미술가인 에르베 뮐레의 첫 한국 방문을 기념해 열리는 '오! 에르베 뮐레 색색깔깔展'은 런던 TATE MODERN, 뉴욕 MoMA,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이어 예술의 전당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김민서 기자

## 텐마인즈 '쉬코노미' 겨냥 하이브리드 매장 선포

현대백 무역센터점에 '브레오' 입점

텐마인즈는 '쉬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휴대용 마사지기 브랜드 브레오(Breo)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뷰티인보우(Beauty in Bow)'에 스텝인숍 개념으로 입점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브레오존에서는 눈과 목·어깨, 손, 발, 무릎, 두피 등 부위별로 마사지가 가능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쇼핑 중 피로감을 느끼는 여성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원하면 뷰티인보우 한켠에 위치한 쇼파에서 브레오 마사지를 활용해 휴식시간도 즐길 수 있다. 짐을 들고 오랜 시간 걸어 다니며 피로해졌던 여성 고객들은 손과 발 등의 마사지를 주로 선호하며,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도 힐링감을 얻을 수 있어 구매로 이어지는 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한 텐마인즈 브레오 매장. /텐마인즈

례가 많다는 것이 매장 직원의 설명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집 나오면 개가 고생”... 펫팸족 ‘개모차’ 인기

노령견·다견가구 유모차 활용 증가  
여름철 햇볕으로부터 피부·눈 보호  
그레인프리·생애주기 맞춤사료 인기

주말, 송도 센트럴파크에 가면 고급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뜨거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린 가림막 안에는 강아지가 탑승하고 있다. 펫팸족 사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반려동물 유모차, 일명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쑥쑥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프리미엄화됐다.

개모차는 수년 전만해도 흔한 아이템이 아니었다. 일부 극소수의 펫팸족이 산책이 힘든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유모차를 사용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며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삶의 동반자 반열에 오른데다, 반려동물의 수명도 예전보다 길어지면서 노령견을 위한 유모차를 활용이 늘어났다. 그리고 다견가구가 늘면서 개모차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모바일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개모차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강한 햇볕으로부터 강아지들의 체력은 물론 피부와 눈을 보호해 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1개월(6월 10일~7월 9일) 간 개모차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5% 증가했다.

티몬 관계자는 “개모차는 주로 다견, 노령, 어린 강아지와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구입하며, 요즘은 스타필드 하남 및 고양 등의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

딩동렛 애견 유모차. /티몬



LUSSO 반려견 유모차. /티몬

책하기 위해 유모차를 구입하는 반려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에서 역시 40만원대 이상 개모차 판매량과 상품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상품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3배(220%) 정도 늘어났다.

개모차의 가격대는 적게는 4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대까지 다양하다. 개모차 외에도 고가의 반려동물 상품이 인기다. 사료만해도 프리미엄

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사료(강아지, 고양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사료 ‘평균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 현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반려동물용품 매출데이터를 살펴보면, 5만원 이상 고가 사료의 매출성장률은 105%에 이르며 사료 가운데 매출 비중도 27%로 가장 높다. 반면 2만원 이하 사료의 경우 매출성장률이 24%로 낮은 편이지만 매출비중도 16% 수준이다.

특히 육식동물에 가까운 생리적 특성을 가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위해 그레인프리 사료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료도 인기다. 프랑스 펫푸드회사 로얄캐닌이 대표적인 브랜드. 로얄캐닌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및 크기별로 사료가 있는데, 로얄캐닌 제품은 일반 고양이 사료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판매량은 증가 추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이마트, 화장품 전문점 사우디에 첫 발

(센텐스)

2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서 첫 선  
한국 매장의 상품·인테리어 재현

이마트가 처음으로 해외 유통기업에 전문점을 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화장품 전문점 ‘센텐스(SCENTENCE)’를 개점한 것.

이마트는 오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유통그룹인 ‘파와즈 알호케이’사의 쇼핑몰 ‘알 나힐 몰’ 1층에 20평(66㎡) 규모의 센텐스 사우디 1호점을 개점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텐스’는 ‘자연주의’ 콘셉트로 ‘향’에 초점을 맞춘 이마트의 화장품 전문점이다. 지난 2016년 7월 죽전점에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국내 매장은 36개이다. 올 1~6월 전년 동기 대비 신장율은 349%에 이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는 몽골 1,2호점에 센텐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유통기업 쇼핑몰에 센텐스가 입점하는 것은 사우디 1호점이 처음이다.

센텐스가 들어갈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알 나힐 몰’은 자라, 겐 등 186개 브랜드가 입점한 리야드의 대표적 쇼핑몰이다. 영업면적 기준 2만8000여평(93.562㎡)에 평균 일일 방문객 2만 5000명에 이른다.

이마트는 연내 리야드 내 쇼핑몰을



센텐스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 /이마트

비롯해 향후 또 다른 대도시인 ‘제다’ 등지에 추가 개점을 현재 파트너사와 논의 중이다.

사우디 매장 콘셉트는 한국과 99% 일치한다. 파트너사측이 센텐스의 한국 매장을 직접 둘러본 후 센텐스 고유의 콘셉트와 ‘시향존’ 등 인테리어를 호평한 만큼 한국 센텐스의 상품과 인테리어를 재현한다. 판매될 상품 역시 페이스 앰플, 클렌징류, 향수, 헤어케어, 바디케어, 마스크 등 향기 테마별 총 154개로 한국과 동일하다.

다만 매장 구성 중 한국과 1% 다른 점은 두피·피부진단 공간이다.

여성이 ‘아바야(목부터 발꿈치까지 가리는 느슨한 통옷)’ 또는 ‘히잡(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을

착용하는 중동 특성상 머리와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부스 형태의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마트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상품군은 ‘향수’다.

중동은 전 세계 향수의 25% 가량을 소비할 만큼 큰 시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용용품 산업에서 향수 매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정경아 이마트 헬스&뷰티 담당은 “중동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빠른 매력도 높은 시장인데다 K-뷰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센텐스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향후 점포 확대를 위해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KT&G 전자담배 ‘릴’·‘핏’ 판매점 2배 확대

KT&G가 권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인 ‘핏(Fiit)’의 전국 판매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릴’과 ‘핏’이 전국 1만9320곳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KT&G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 24 등 주요 편의점 1만9159곳에 오는 18일부터 제품을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릴’과 ‘핏’의 판매처는 모두 3만8479곳으로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에 한 정적으로 출시된 ‘릴’과 ‘핏’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지난 3월 부산·광주·대전·세종 등 주요 대도시로 판매지역을 늘렸고, 지난달에는 경기 평택과 안성 등 162개 도시로 확대하며

전국 유통망을 구축했다.

KT&G의 ‘릴’은 제품의 편의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 지난 5월 신제품 ‘릴 플러스’를 출시했고, 이에 힘입어 현재 누적 판매량이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용담배인 ‘핏’ 역시 ‘체인지’, ‘체인지업’, ‘스파키’ 등 모두 4종이 출시됐다.

판매점 확대에 따라 KT&G는 제품 A/S와 사용법 안내, 클리닝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릴 스테이션(lil Station)’을 4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스마일페이, CJ몰에 페이스서비스 제공

이베이코리아

오픈마켓 간편결제 최초 입점

이베이코리아는 회사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가 유통 플랫폼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간편결제 최초로 CJ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일페이는 이베이코리아가 2014년 G마켓과 옥션, G9 등 자체 사이트 서비스용으로 도입한 간편결제제로, 내부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외부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가맹점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흡소핑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중에서는 CJ몰이 최초다.

스마일페이는 현재 신라인터넷면세점, 인터넷 서점 ‘알라딘’, 신선식품 전문몰 ‘마켓컬리’, ‘소니코리아’와 ‘힐라코리아’ 온라인몰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가맹점



과 GS수퍼마켓 앱에서도 결제와 할인, 적립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더에이몰’과 ‘피자헛’에도 적용된다.

또한 스마일페이가 가맹점에서 스마일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한도 제한 없이 무조건 구매 금액의 2%를 스마일캐시로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 김지현 제휴사업팀장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CJ몰과 스마일페이가 만나 보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향후 CJ몰과의 협력 범위를 확장해 CJ몰의 카카오톡을 통한 ‘톡주문’ 서비스에 스마일페이를 구현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KGC인삼공사

‘정물’ 거래액 100억원 돌파

KGC인삼공사는 자사 건강식품 전문몰인 ‘정물’의 누적 거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7월에 오픈한 ‘정물’은 만 1년 만에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는 5만여명, 전체 회원 수는 45만명에 달한다.

KGC인삼공사는 자사 홍삼 제품 뿐만 아니라 건강·뷰티 등 정관장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식품업체들의 자사 온라인몰과 차별화를 이뤄낸 점을 ‘정물’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박인용 기자



올리브영

최대 50% 할인 ‘맨즈데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은 오는 21일까지 남성 고객만을 위한 ‘맨즈데이(Men's Day)’ 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맨즈데이는 남성 전용 화장품과 더불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더모코스메틱, 클렌징패드, 트러블케어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울인원, 면도기, 헤어왁스 등 남성 전용 화장품만으로 행사를 구성했던 기존 맨즈데이와는 확실히 차별화 했다.

해당 기간 동안 올리브영은 약 120여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사회혁신가 키운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

## 아산나눔재단

### 청년 20명 선발해 기업가정신 교육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사옥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 4기 입단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과 인턴십 기관, 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미래의 사회혁신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을 선발해 ▲비영리 기관 인턴십 ▲인팩트 교육 ▲글로벌 스테디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4기로 발탁된 청년 20명은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유스 단원으로 활동한다. 2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이들은 오늘부터 5개월간 국내 비영리 기관에 배치돼 비영리 분야 실무 경험을 쌓



지난 13일 진행된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는다. 인턴십은 '드림터치포울',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20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인턴십 중에는 매달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1대1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총 200시간의 인팩트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은

비영리 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과 함께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스테디를 위해 9박 10일간 해외 우수 비영리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넷마블문화재단

### 게임소통교육 가족 캠프 참가자 모집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넷마블 게임소통교육 가족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넷마블게임소통교육 가족 캠프'는 넷마블이 지난 2016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가족 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게임소통교육'의 일환이다.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숲속마을에서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게임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8월 7일까지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태광그룹 일주재단 '백두산 캠프' 해단식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일주재단)은 14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서 '산악인 엄홍길과 함께 하는 백두산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4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서 '산악인 엄홍길과 함께 하는 백두산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 /태광그룹

일주재단과 푸르메재단이 함께 진행한 백두산 캠프는 지난날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 길림성

연길 일대에서 태광그룹 임직원 중·고등학생 자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해단식 행사는 후기공모전 개인별 시상과 우수조·개인MVP 시상, 세화미술관 '원더시티' 전 관람, 씨네큐브 '개들의 섬' 영화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캠프 참가자 및 학부모, 일주재단 및 푸르메재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구서윤 기자



아프리카TV는 오는 21일부터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를 생중계한다. /아프리카TV

## 아프리카TV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생중계

아프리카TV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ICC는 비시즌 투어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해외축구 클럽 친선 대회로 북아메리카, 유럽,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ICC에는 프리미어리그 6개 클럽, 프리메라리가 4개 클럽 등 총 18개의 클럽이 참가한다. 특히 ICC는 각 팀 별로 여럿 이적시장에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을 확

인하며, 곧이어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향방을 점칠 수 있어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아프리카TV는 첫 경기인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의 대결을 시작으로 총 27경기 중 17건은 생중계로, 10건은 녹화방송으로 중계한다. 대표 중계진으로는 MBC 축구 해설위원 이주현과 스포츠 캐스터 박준영이 나선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자. 60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72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하자. 84년생 하나를 뿌려서 열 개를 수확하는 날이다.
- 소**  4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61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간의 불화가 생긴다. 73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삼가자. 85년생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 하루.
- 호랑이**  5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 62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7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86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 토끼**  51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3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 87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지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원숭이**  52년생 오랜 적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6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스스로 알아서 판단. 76년생 뒷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날. 88년생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갈피를 못 잡는다.
- 뱀**  5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5년생 천년을 가는 사랑도 있다. 77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힘들다. 89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픈 마음이 드는 하루.

- 말**  5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66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78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9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재충전이 필요.
- 양**  55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인연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67년생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갖고 오니 즐겁다. 79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91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가 되겠다.
- 원숭이**  56년생 운이 상승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68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더 어려운 난처한 하루. 80년생 충언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92년생 주변 사람들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 닭**  57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69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81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93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으니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자.
- 돼지**  5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70년생 다정도 병이니 자녀에게 지나친 잔소리는 금물. 82년생 그물의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4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니 남들의 부러움을 삼다.
- 돼지**  59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71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83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곧 오겠다. 95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9				5	7		
	6		2	5		3		
8					6			
5	1	6			7		8	
	3		4				1	
					3	2		
2		1	3					
	4		5	6				

								7
		3	2				5	6
	8				3		1	
	1		5					
			4		8	7	3	
		5	2					9
				4				
	2	1	3				8	4
7	9			2				6

스도쿠 정답								
6	8	1	9	5	2	7	4	3
4	9	7	6	3	1	8	5	2
5	2	8	7	4	8	1	9	6
1	6	2	8	7	5	4	3	9
8	7	4	6	9	2	1	5	3
3	5	9	2	1	7	4	6	8
7	3	8	5	2	6	9	4	1
2	4	5	1	9	7	6	8	3
9	1	6	4	8	3	5	2	7
3	9	5	2	8	1	7	6	4
7	8	6	5	4	1	2	9	3
1	4	2	9	7	6	8	5	3
6	7	1	4	2	9	5	3	8
5	3	4	8	1	7	6	9	2
8	2	9	6	5	4	1	7	3
2	1	7	3	9	8	5	6	4
9	5	8	7	6	2	4	1	3
4	6	1	9	8	3	7	5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이상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대담성, 신

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과 술선수법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

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말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할 수가 없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요인 탓을 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주 희망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

대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진행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37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을 모아 마련한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실천하기' 기금으로 조성됐다.

/대우건설



기아차,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전 'SLOW 캠페인'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전국 3개 지점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전 'SLOW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기아차는 롯데백화점 일산점(7월13일~22일), 영등포점(7월25일~8월1일), 평촌점(8월4일~12일) 등 총 3개 지점 문화홀에서 SLOW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누구나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기아차

## 10명이 나눠맞는 주사액



**기지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누구나 자식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유료와 무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핵예방 백신(BCG)은 경피용(도장형)과 피내용(주사형)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소아 결핵 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의 공

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을 재개했다. 총 4만5000바이알(45만명분)이 출하됐으며,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피내용 BCG가 공급됨에 따라 품질기간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됐던 경피용 BCG는 다시 유료(7만원)접종으로 전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경피용 BCG는 피부에 백신을 바른 후 관침을 이용해 피부를 통해 백신을 흡수시켜 접종하지만, 피내용 BCG는 진피내에 주사액을 주입해 5~7mm팽진을 형성

시켜 접종한다는 점이 다르다. 게다가 피내용 BCG는 10인이 나눠맞는 백신으로,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경피용 BCG가 다시 유료화된 점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사액 오염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 걱정 없는 경피용 BCG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해마다 공급 불안정으로 이미 불편을 겪고도 피내용 BCG만을 고집하니 백신 수급 안정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tree6834@metroseoul.co.kr



한샘, '5년째 토크콘서트 후원' 감사패 받아

한샘이 2013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부모교육토크콘서트 '부모, 길을 묻다'로 감사패를 받았다. 16일 한샘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토크콘서트는 올해에도 이달 15일을 시작으로 22일과 8월26일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공연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15일 '부모, 길을 묻다' 강연에서 한샘 원홍석 대외협력팀장(오른쪽)이 양원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예술정책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 김현환 ▷과장급 전보 ▷분석과장 노점환 ▷소통협력과장 강동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파견) 이선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파견) 안현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무홍보과장(교무) 안중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장 이종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최유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박경숙
- ◆한국전기안전공사 ▷3급 승진 ▷홍보실 박철승 ▷기획혁신처 예산부 최종민 ▷기획혁신처 정책총괄부 이승준 ▷경영지원처 건축자산관리부 박영준

▷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김미선 ▷강원지역본부 강원동부지사 홍영래 ▷전기안전연구원 안전연구부 허용석 ▷전력설비감사처 발전사용전검사부 송재성 ▷기획혁신처 성과관리부 심명수 ▷전기안전연구원 안전연구부 이진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지사 정인철 ▷검사점검처 점검부 정지훈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지사 박순성 ▷전기안전교육원 교육지원부 최지성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상민 ▷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장 이준기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장 최정민

◆라니아생명 ▷상무 ▷CX협력본부 브랜드팀 김현주 ▷이사 ▷Sales협력본부 제휴개발사업부 이종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실장 ▷소통실장 문태금 ▷서비스일련성실장 김문락 ▷혁신성장실장 정성대 ▷마케팅2실장 오용식 ▷강남코엑스점장 정수용 ▷강북힐튼점장 권익준 ▷부산롯데점장 박강우 ▷팀장 ▷서비스일련성실 코엑스팀장 한미정 ▷감사기획팀장 윤병호 ▷반부패청렴팀장 윤서현 ▷신사업추진팀장 유봉기 ▷인권법무팀장 문치택 ▷혁신성장팀장 김철 ▷성과평가팀장 성주현 ▷사회적기치추진팀장 사철원 ▷혁신인사팀장 김현태 ▷윤리경영팀장 이종원 ▷재무관리실 힐튼경리팀장 양혜리 ▷광고이벤트팀장 한동균 ▷공항공전팀장 장재원

▷영양혁신팀장 김익돈 ▷강남코엑스점 운영기획팀장 김현수 ▷강남코엑스점 머신영업팀 류세열 ▷강북힐튼점 오피레이션2팀장 김진 ▷강북힐튼점 머신영업팀장 서정환 ▷부산마케팅1팀장 김대근

◆데벨 ▷편직국 ▷벤처중기부 차장 김세연 ▷산업2부 차장 김강환 ▷차본시장부 차장 민경문

### 부음

▲ 김홍규씨 별세,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장지 고창군 선영. 063-221-4400

▲ 오규영씨 별세, 오진웅(이용호 의원실 보좌관)씨 부친상 = 16일,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302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1-323-0044

▲ 유병택씨 별세, 이학재씨 남편상, 유재형(아주그룹 미래전략실장 겸 자동차부품 총괄대표)·재웅(넥스퍼파이낸스 고문)·용재(동원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씨 부친상 = 13일,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제17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하남시 선영. 02-3410-6917

▲ 박석환씨 별세, 강승희(KB증권 Equity파생운용부장)씨 빙부상 = 15일 상계백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938-5320



아모레퍼시픽, 美최대 뷰티 페스티벌 참가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최대 뷰티 페스티벌인 '뷰티콘(Beautycon) LA'에서 K-뷰티 열풍을 선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4일~15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뷰티콘 LA'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2만 2000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부터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아이오메까지 총 5개 브랜드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모레

### 유유테이진 전문경영인에

### 이동욱 사장 영입

유유제약의 관계사인 유유테이진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 중장기 사업포트폴리오 전략가능 강화를 위해 이동욱 사장(사진)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욱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중의계약, 한국화이자 등에서 영업·마케팅과 신제품 런칭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다. 최근 13년

간은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가정용 산소사업, 의료용 산소·액체산소 사업 등의 책임자를 역임한 전문경영인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721-9800, FAX: 027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721-9851, 9826
독자센터	027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93호

# 정규직과 非정규직 사이... 공기관 무기계약직 늘렸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 신규 일자리 비중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정책' 기조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는 편법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무기계약직 신규일자리 비중 급등  
평년 한 자릿수서 약 27%로 올라  
채용 규모는 커졌지만 '편법' 지적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이고,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처럼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 1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

〈최근 3년 공공부문 신규채용 규모 및 고용형태〉

구분	올해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 정규직+무기계약직	7,901	19,726	19,634	18,023
정규직	5,778	19,726	18,178	16,185
무기계약직	2,123	1,409	1,456	1,837
정규직 비중	73.1	93.3	92.6	89.8
무기계약직 비중	26.9	6.7	7.4	10.2

\*올해 1분기 기준 직원수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 대상.

/자료=알리오·CEO스코어

9726명)다.

제작년에도 총 1만9천6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2.6%(1만8178명)이었고, 2015년에도 1만8023명 중 정규직은 89.8%(1만6185명)였다.

일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올

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다. 이는 작년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은 숫자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46명)·신용보증기금(25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한국

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으나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2명씩에 그쳤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숫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제여름학교 학생들이 '삼계탕 맛있어요~'

초복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여름학교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이번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행사는 한성대 2018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에서 온 22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했다.

/뉴스시스

## 대학가 소식

### 한화S&C-고려대 'AI 공동연구 채용연계 산학 협력'

한화S&C가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데이터마이닝(DMQA) 연구실과 '인공지능(AI) 분야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S&C는 연구실과 공동으로 AI 알고리즘·모델과 관련한 학습·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채용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S&C는 AI 분야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 데이터마이닝 연구실과의 협력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대 자율車팀 'KAI', 프랑스 국제대회 결선 진출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소속팀 'KAI'가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발레오 이노베이션 챌린지 2018'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발레오 이노베이션 챌린지(VALEO INNOVATION CHALLENGE) 2018'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가 주최하고 20만유로(한화 약 2억60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국제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세계 107개국, 680개의 대학, 1470개 팀이 참여했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9개다. 국민대 KAI(Kookmin Automotive Intelligence)팀은 Autonomous Vehicle 부문에서 프랑스, 일본, 캐나다 3개팀들과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 경희사이버대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 AR·VR 연구실'이 서울산업진흥원의 '2018년 DMC지원 시설 입주기업 모집'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공모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관광 분야 산학협력 모델'로 선정됐다.

관광 AR·VR 연구실은 지난 4월 서울 상암 DMC의 SBA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협력기업과 입주식을 진행했다. 협력기업은 ELS edu, SOFTDEUS, 씨젠 글로벌과 158코리아 등이다.

/이범종 기자

## 신입구직자 40% "인턴십 경험... 67% 불만족"

예체능>경상)사회과학)인문계열 순  
평균 급여 144만원, 외국계 가장 높아

올해 하반기 신입직 구직에 나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은 인턴십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4년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855명의 '인턴십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744명)가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 인턴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계열(44.8%)과 사회과학계열(44.4%), 인문계열(40.5%) 전공 경험자가 많았다.

반면 이공계열(35.4%), 자연과학계열(29.6%) 전공자 중에는 인턴십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37.8%) 보다 여성(41.4%)이 많았다. 대학 재학생(34.3%) 보다는 졸업한 취업준비생(43.0%) 중 인턴십 경험자가 많았다.

취준생 64%

### "하반기 구직난 더 걱정"

구직자들은 올 하반기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이인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예상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상반기보다 구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별 채용이 더 축소될 것 같아서'(5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50%),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정책 변화로'(33.5%),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28.2%),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을 주도했던 산업이 축소돼서'(27.8%), '경쟁자들의 스펙이 더 높아져서'(23.2%),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별 소용이 없어서'(22.5%) 순으로 대답했다.

구직자들은 심화된 구직난의 대책으로 '높이 낮춰 입사지원'(54.2%,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범종 기자

〈신입구직자 40% "인턴십 경험"〉



4년제 대학생·취업준비생 1,855명 조사.

/자료=잡코리아·알바몬

인턴 근무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복수선택 응답률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21.9%), 대기업(17.5%), 공기업(13.3%), 외국계기업(9.5%) 순으로 응답했다.

인턴 근무당시 가장 많이 한 일은 서류 정리나 자료입력, 코딩 등 '단순사무보조'가 복수선택 응답률 52.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서작성 능력이 필요한 일(34.5%)'이나 '전공 지식이 필요한 일

(31.5%)'을 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인턴십 월 급여는 평균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는 근무기업에 따라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인턴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외국계기업으로 평균 156만원이었다. 이어 중견기업(평균 148만원)과 대기업(평균 146만원)의 인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평균 141만원)과 공기업(평균 140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턴십 경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인턴 경험자의 73.4%는 '인턴 경험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턴십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7.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32.4%보다 높았다.

인턴 경험에 만족하는 이유 중에는 '직무관련 일을 배웠고(65.8%)', '기업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63.4%)'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각 10명 중 6명 정도로 많았다.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생겨서(51.1%)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수준이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 교육부 '교육지원 한눈에' 맞춤형서비스 확대

교육부의 교육복지·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이 1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는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준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교육부의 60여 개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추가하기로 4월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확대 개편에 포함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 등 90여개 정책이다.



교육부.

/메트로신문

또한 특수(24개), 다문화(23개), 저소득층(19개)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포함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수요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변함  
없는  
1등

한양  
사이버  
대학교

최고 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대상(7년 연속 수상)

최다 학과, 전공  
28개 학부(과)

최대 재학생 규모  
학생수 1위, 재적생 16,967명

명문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총 2,623명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07.18(수) ~ 08.14(화)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 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인문사회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 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문의 전화 02)2290-0082 • 입학지원센터 go.hycu.ac.kr

# 농식품분야 신남방정책 활로 가시화... 수출 다변화 박차

## 공기업맨 인터뷰 |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新)남방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신 남방정책이란 그동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대국에 많은 비중을 뒀던 우리 외교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로 확장해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중·일·러에 의존했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 신 남방정책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 남방정책을 통한 수출 활로 개척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식품분야다. 아세안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를 지난 13일 만나 신 남방정책 추진계획 및 식품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 우선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 aT의 역할은 무엇인가.

"aT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육성정책에 따른 수출지원 전담기관이다. 수출기반 조성부터 수출상품화, 물류, 검역·통관, 해외마케팅까지 농식품 수출의 전 과정에서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은 공산품과 같은 중간재가 아니라 소비재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이 안전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aT가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 - 최근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농식품 수출 상황은.

"작년 우리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91억5000만 달러로 AI 발생,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중국 수출의 경우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지만 새로운 유통망 개척과 현지 프랜차이즈와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중국 수출도 많이 회복된 상태다. 실제 중국 수출은 최근에 10%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수산물 수출도 4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채류, 인삼 등 신선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 수출도 신선농산물 수출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 - 아직 우리 농식품 수출은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거 같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계획을 알고 싶다.

"사실상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본·미국·중국 3개국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49%에 이르는 등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 aT는 중남미(브라질, 중동(카자흐스탄), 유럽(폴란드), 아프리카(남아공), 아세안(대만, 말레이시아) 등 권역별 최우선 전략국가를 선정해 과일·야채와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을 파견하고, 100여 개의 시장다변화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일·야채와 AFLO는 현지국의 다양한 수출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의 지사상 역할수행, 바이어 발굴, 수출홍보마케팅 등 현지 시장개척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상품화, 디자인, 시

장조사,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순방했다.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aT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aT 또한 아세안 지역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주력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농식품 분야 신 남방 수출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세계 3위의 인구나 세계 6위의 GDP를 보유한 거대시장이며 40세 이하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66%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지역에 aT의 수출지원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 유통망 개척·현지화로 수출 호조 올해 중국 수출 확대 등 중점 추진

딸기, 배, 단감 등 신선과일과 유자차, 삼계탕,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스타품목을 중점 육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아세안 지역에 설치된 지사를 총괄하는 아세안 지역본부를 설치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별 거점 대형유통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온라인, 홈쇼핑 등 현지 유통망 내에 한국식품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3S(소셜미디어, 스타마케팅, 스토리 연계 마케팅) 마케팅을 중심으로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해 한국식품의 장기 애호층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 - 중국은 우리 농 식품 수출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사드 등의 여파로 수출이 많이 어려웠다. 올해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aT는 중국 수출 확대 전략으로 '대 중국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한국식품 유통·판매 플랫폼 확대', '콜드체인 구축을 통한 내륙시장 공략'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식품 및 유자차, 포도 등 대 중국 전략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지원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알리바바몰 입점 지원과 현지 유통 편의점과 연계한 판촉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참다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내륙거점도시 및 소비자까지 콜드 체인을 확대 운영해 수출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 -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미·중 무역분쟁이 농 식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현재 우리가 미·중 무역분쟁을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중국의 전자 제품안에

국내 부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 농식품은 중간재인 공산품과 달리 소비재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악화되면 외국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둔화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농어업의 중요한 소비처로서 최근 외식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20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aT는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외식업체와 산지간 직거래 촉진, 중소기업 외식업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공동구매 지원 및 지역 농식품 판매코너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의 지정 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식품기업의 우리 농산물 활용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중진공 '조직혁신 TF' 출범... 경영혁신 팔 걷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조직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내·외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상직 이사장(왼쪽 5번째)이 TF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6개월간 발전방향·혁신과제 논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이달 초 학계, 연구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외부전문가 7명, 내부 부서장 6명을 위원으로 하는 '조직혁신 TF'도 출범했다.

중진공은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1차 중진공 조직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기 위해 60일간 경영혁신소통팀을 가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혁신성장 유동화사업 신규추진 등 20개의 기관혁신과제와 70개의 부서혁신과제를 마련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이미 수립한 혁신과제에 대한 자문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와 함께 사업, 서비스,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 '조직혁신 TF' 외부위원으로

는 전주대 박동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권경현 이사장,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대표, 아이스탑스 오토모티브 김구현 대표, 광운대 이병현 대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수석 연구원이 각각 참여했다.

특히, 중진공은 TF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TF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기관의 발전방향과 경영혁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의 경우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서비스, 조직 등 핵심사업과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을 균형있게 구성했다는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또 내부위원은 전방위 혁신을 위한 기획 담당 부서장 2명, 주요사업 담당 부서장 4명이 참여한다.

이상직 이사장은 "조직혁신 TF가 객관적 시각에서 중진공 혁신에 성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진공의 혁신으로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는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근로복지공단-하나금융그룹

### 대기업·중소 노동자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인천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및 시설전환으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해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 범위 내 최대 20억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원 등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목표로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서 740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하나금융그룹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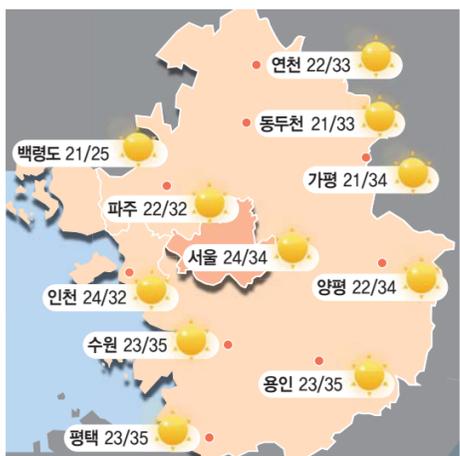
해돋이 / 05:24 | 해질 / 19:52

7월 17일  
음력 : 6월 5일

### 수도권 날씨

34~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화장실 10만 곳 점검... 실적 '0' 여성안심보안관 '있으나 마나'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위해 도입  
3년간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 '0'

서울시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3년간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몰카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8월 마련한 제도다. 보안관들은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공연장 등에 찾아가 전자파 탐지장비와 적외선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3만703개 건물 내 10만6302곳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몰카 적발 건수는 '0' 건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주목적은 '몰카 근절 캠페인'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기간(7월 1일~8월 20일)에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983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

이후에도 불법촬영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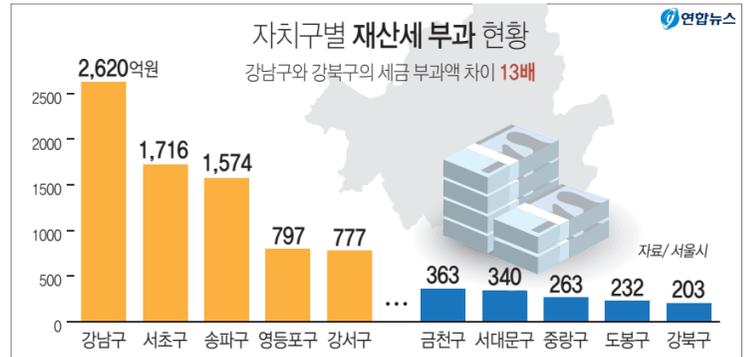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나 종합생회측의 요청으로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에서 몰카 점검을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줄지 않자 시는 올해 1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시설이나 기관이 서울시에 점검 신청을 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거나 몰카 탐지 장비를 장기 임대 해주는 방식이다. 강제성이 없어 지난 6개월간 신청 횟수는 14건, 임대된 장비개수는 29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권한이 없는 시와 달리 자치구 위생부서는 요식업과 숙박업소 등 민간 업체 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자치구와 협조해 여성안심보안관이 민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강남·북 재산세 '13배' 차이

강남구 '2620억' 강북구 '203억'

서울 자치구별로 부과된 7월분 재산세에서 강남구와 강북구가 1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엔 부과된 7월분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

16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7월분 부과 서울시 재산세 규모는 419만 4000건, 1조6138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비주거용)이 5843억원(88만8000건), 선박 8000만원(1000건), 항공기 97억원(200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만6000건(2.6%)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건(2.9%) 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 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488억원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 초복 앞두고 '개식용 종식 vs 육견농가 생존'

식용종식 관련 청원 21만명 돌파  
5000여 육견농가 생존권 촉구

초복(17일)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찬반집회 및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도 20만명을 넘어서다. 동물권보호단체들과 개사육농가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과 동물 보호' 그리고 '개사육농가 생존권'라는 각각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17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1만1958명의 참여자를 확보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개요에서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아임 낫 푸드(I am not food)-먹지말고 안아주세요'라는 행사를 벌인다. 케어는 이날 '퍼스트 도그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캐릭터로 해 만든 인형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아지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김아랑 선수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케어 관계자는 "황금개의 해를 맞아 올해를 '개식용 종식' 원년으로 삼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동물권 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고 있다. 복날만 되면 희생되는 개들이 많다"며 "다행히 동물권보호 운동 등을 통해 개농장이나 사철탕 등 식당 등 산업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율도 5년전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 준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먹는 분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족보호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개농장시설 내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처벌받기 때문에 그동안 개농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동물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 대상은 개만이 아닌, 소, 닭, 돼지, 말 등 포괄적이다. 서울에서만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반려견이 증가하고 있고, 굳이 식용으로 개를 간주해야 할 이유도 그당위를 잃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가족 사육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출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개는 특히 합법 축산물도 아니고, 반려동물인 구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내 개를 잃어버리면 잡혀먹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개, 고양

이에 있어서는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육견농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5000여명 육견농가 회원들이 속해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인 15일 상경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사육농가 생존권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단체에서 개사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1963년 만들어진 축산법에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슬그머니 '개'가 빠져버렸다. 축산법이 모법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개 사육에 발정유도제 사용이나 항생제 남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원들 99%가 미생물을 발효시켜 개밥에 섞어 먹인다. 그리고 번식도 계절번식으로 일년에 1~2번 가능하고, 인위적인 번식은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총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300마리 이상, 식용 개 사육을 목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진희 기자

## 서울도서관, 입양인식 개선 팔 걷어

오늘부터 전시·강연 잇따라 진행

서울도서관은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와 강연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입양동화 '가족이 되었어요' 원화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입양 토크 콘서트', '임정진 작가와의 만남'이 마련됐다.

동화 '가족이 되었어요'는 중앙입양원이 입양 문화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출간한 도서다.

이번 전시에는 동화 원화 16점이 공개된다. 책 속 주인공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원하는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줘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와 연계해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는 '입양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입양 상담을 받는 예비 부모,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나눌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

### 아날로그 감성 영화 상영

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의 1930~1950년대 모습을 담은 아날로그 감성의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박물관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934년 안중화 감독의 '정춘의 십자로'와 1958년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까지 총 12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영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와 6시 30분,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상영된다.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영화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마켓]**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내 상장사에도  
공시대리인제 허용”  
08



Life

**[유통]**  
노령견·다견가구  
펫팜족에  
‘개모차’ 인기  
11



# 연령대별 모바일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회공헌

## 베이비스토리... 키즈곰곰... 아지냥이... 인생락서

〈출산·육아〉

〈유아교육〉

〈반려동물〉

〈중장년층 소통공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② 삼성카드

카드사의 사회공헌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회사·직원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삼성카드는 ‘열린나눔’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열린나눔’은 소외 이웃을 위해 고객이 직접 나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제안, 포인트와 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열린기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봉사로 구성돼 있다.

이 나눔을 통해 삼성카드는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과 차별 속에서 장애인, 외로움을 홀로 견디는 어르신부터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까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제공한다.

#### ◆ 사회공헌도 모바일·온라인으로

삼성카드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CSR)을 한 차원 높여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펼쳐는 공유가치 창출(CSV)로 진화시켰다. 공유가치창출(CSV)이란 사회현안에 대해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14년 영랍(20대 소통)을 시작으로 베이비스토리(출산 및 육아), 키즈곰곰(유아교육), 아지냥이(반려동물), 인생락서(중장년층 소통공간) 등 5개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베이비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이 활동할 때 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미혼모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키즈곰곰을 통해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교육 지원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5060세대를 공략해 출시한 ‘인생락서’는 중장년층이 자서전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글쓰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반려동물 커뮤니티 ‘아지냥이’는 유기동물 후원사업은 물론, 전문가 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회원 수는 베이비스토리 32만명, 키즈곰곰 26만명, 아지냥이 28만명, 인생락서 12만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주는 ‘디지털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지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청소년 꿈 응원...미래 인재 지원 ‘골든벨’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부터 KBS 도전골든벨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골든벨 스튜디오, ‘골든벨 스쿨’, ‘골든벨 스테이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골든벨 스테이지는 젊은 예술가에게



지난 2월 골든벨 장학생 중 올해 대학 입학할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고객이 아이디어 제안해 나눔 실천 회사·직원·고객 힘 모아 ‘열린봉사’

20대·유아교육·반려동물 등 5가지 모바일 커뮤니티 제공 다양한 사회공헌의 장 만들어

17년간 ‘도전 골든벨’ 후원해 장학생들에 대학입학금 전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는 차별화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나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실력에 비해 기회가 부족한 젊은 예술가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특별가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해 공연 관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골든벨 스쿨은 일상 속의 숫자와 빅데이터 사례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중학생 청소년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을 일상생활에 접목해 다양한 게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골든벨 장학생중 올해 대학입학을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을 전달하고, 지난 3월에는 골든벨 스튜디오 멘토와 멘티 160명, 골든벨 스쿨 대학생 봉사자 50명이 참여한 골든벨 장학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 ◆ 소외계층서 유기동물까지

삼성카드는 굶주림과 질병, 사고의 위험



- ① 지난 3월 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에서 골든벨 장학사업 발대식이 진행됐다.
- ② 삼성카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기부로 치료한 유기동물의 근황을 올려 공유하고 있다.
- ③ 지난 3월 삼성카드는 서울지방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④ 삼성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연2회 연탄배달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에 노출된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거리로 내몰리는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열린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여섯 마리 유기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동물을 치료한 사진과 근황 등 기부금 이용과정을 모두 올려 공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기동물을 위한 열린기부의 목표액은 300만원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나눔은 유기견 검진 및 치료비와 사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16일 기준으로 고객기부액은 약 200만원, 삼성카드 기부액은 약 95만원 가량이 모금됐다.

삼성카드관계자는 “열린기부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유기동물을 위한 기부활동”이라며 “향후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선진국 제도 소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거시적 측면에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